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12 (2002-2003)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제12호 (2002년-2003년)

OPEN 7 DAYS

KOREAN • JAPANESE • RESTAURANT

kaya

케터링 문의
(617)576-2222

BOSTON
581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16
(617)236-5858

CAMBRIDGE
1924 Mass. Ave.
Cambridge, MA 02140
(617)497-5656

BROOKLINE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617)738-2244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436
Boston, MA 02108
Tel: (617) 799-7033
Fax: (617) 482-3344
<http://www.KACLNE.org>

Publisher: Song-Kun Kim

Editorial Board Advisor:

Kyung Min Park

Editor-in-Chief: Eui In Lee

Editors: Gi Baek Song, Michael Kim,
Moon So Kim, Yang Kil Kim,
Sang Chul Shin, Kay Dong

Printing: Bigwood Press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발행일: 200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성군

편집고문: 박경민

편집장: 이의인

편집위원: 송기백, 김명기, 김문소,
김양길, 신상철, 이경해

인쇄: 큰나무 인쇄소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unique Korean elements to American society. To this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England, and employing various other methods.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3) Supporting Political Interns:

KACL has supported Korean-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political career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ork in Senator's and governor's offices.

4)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5)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6)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Page	
3. 발 간 사	회장 김 성 군
Message from the President	Song-Kun Kim, President
5. 격 려 사	Jane Swift, Governor, Massachusetts
Congratulatory Messages	John G. Rowland, Governor, Connecticut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John F. Kerry, United States Senator, Massachusetts Martin T. Meehan, United States Congressman, Fifth District, Massachusetts Michael E. Capuano, United States Congressman, Eighth District, Massachusetts Paul H. Shin, Ph.D., State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 Washington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 박 재 선
13. 이사장 인사 말씀	이사장 송 기 백
Message from the Chairman	Gi Baeck Song, Chairman of the Board
14. 시민협회 활동 보고	사무총장 김 명 기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FY 2002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16.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민협회 초기회장 김 영 집
Learning from Forefathers	Young Jip Kim, Dr., First President of KACL
20. 재외 동포는 한민족의 자산: 한민족 공동체 전략과 2세 교육	서울대 명예교수 이 광 규
Korea's Real Resource: Koreans Living Abroad	Kwang Kyu Lee, Hon. Prof., Seoul National Univ.
24. 재외 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샵 참가 보고	서 예 진
Next Generation Leaders Workshop for Koreans Abroad	Christina Suh
25. 정치 인턴 보고	이 찬 정 Chan Jong Lee
A Report from Political Interns	명 제니퍼 Jennifer Myung
27. 2003년도 정치 인턴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서	
2003 Summer Political Internship Program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	
29. 시민권 신청 및 선거인 등록 방법	회장 김 성 군
Citizenship Application and Voter Registration	Song-Kun Kim, President
30. 107차 하원 결의안 297항	
107th Congress Resolution 297	
32. 뉴잉글랜드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 주도 프로젝트	마이클 리우
Asian American in New England Research Initiative (AANERI)	Michael Liu
34. 매사추세츠주 아시안 아메리칸 선거인등록에 관한 연구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
New Study on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in Massachusetts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36.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헌장	(1996년 10월 19일 개정)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nded on October 19, 1996)
40.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2002년 10월 27일 현재)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As of October 27, 2002)
43. 재무 보고	재무 김 광 민
Financial Report for FY 2002	Kwang Min Kim, Treasurer
44. 시민협회 입회안내 및 입회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47. 뉴잉글랜드 지역 업소 전화록	
49. 개인, 업소 및 단체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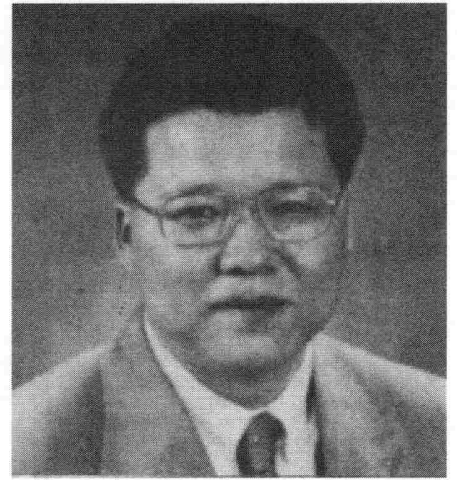
기타 기사: 42. 임기 연한별 이사 구분
42. 협회 주요 사업 계획
43. 2003년도 예산

지난 일년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사님들,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저널의 발간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하여주신 이의인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협회가 1990년도에 창립된 이후 벌써 13번째의 봄을 맞았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단체이기에, 아직도 규모나 참여에 있어서 부족한 단체이지만 타 지역 그리고 다른 한인 및 아시아 단체에 인권단체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수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한 중국 미국인에게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 그들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많은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특히, 젊은 2세 쑤나무를 심고 있는 연례 정치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0명 가까이 정치인턴을 배출한 우리의 노고에 많은 찬사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아시아 인권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처럼 정치인턴 장학사업을 하고있는 단체는 인디안 미국인과 한인 미국인뿐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처럼 이곳 미국 영주권자가 더 많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권 신청 위

크샵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단체뿐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한인시민협회의 전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더 많은 이곳 한인들이 이러한 우리의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3년은 많은 동포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인 미국인인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경민 회장이님이 필두가 되어,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광규 교수 초청강연회가 성요한교회에서 “21세기 한인 재의 동포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었고 저희 시민협회 또한 중요한 주체가 되어 많은 임원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민 백주년이 갖는 의미는 시민협회의 인권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70%의 한인 미국인은 이민을 온 세대이고, 우리 이민 한인의 모범을 손수 보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분의 “홍사단” 조직, 그리고 서재필 선생님의 사업은 당시 미국 내에서 빼앗긴 모국의 광복운동이었지만, 결국 21세기에 그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 내에서 아시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의 인권운동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민백주년 사업을 위해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를 위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갓 이민을 오게되어 영어가 불편한 자녀라 하더라도, 영어만을 쓰게되는 일반교과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영어가 불편한 자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미국은 소수민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치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언어뿐만 아니라 현재 소수민족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또한 끊어질 수 있다는 적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협회는 이렇게 어려운 정치 현황을 고려하여, 2003년도에는 더욱더 이곳 미국사회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권활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한인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의 유권자등록은 물론이고, 시, 타운 그리고 지방선거 때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투표하여, 우리의 민권에 불이익이 있는 법안이 더 이상은 통과치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협회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283명의 회원여러분, 본 협회지 광고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 임원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협**



김성군회장은 성균관대학교와 U. Mass Boston을 졸업하고 Suffolk Univ. Law School을 졸업한 후 1994년에 매사추세츠 변호사가 되었으며 현재 김성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대법원에서 한국어 번역 및 통역관으로, APAAC의 이사 및 경제인 협회의 부회장으로 있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보에 2년에 걸쳐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또한 과학자기술협회 및 노인대학에서 강좌도 담당한 바 있다.

Song Kun Kim, President,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 in 1984 and UMass in 1988, and Suffolk Univ. Law School in 1993. He was admitted to the Massachusetts Bar in 1994; he now runs his own law office in Boston. He has been working as a Court Interpreter and Translator of Korean at Mass. Superior Court from 1988. He also serves APAAC as a board member, Korean Business Association of New England as vice president. He contributes to NE biweekly newsletter from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and delivered several lectures on laws at various Korean organizations.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가 차기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4년 전 민주당 주지사 후보 스타트 하시바거를 저희 협회가 후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떠한 주지사후보를 정식으로 후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보스턴 중국 타운-중국어 미국인의 경우, 민주당 후보인 쉐넌 오브라이언(소수 아시아인을 위한 사업공약을 함)을 후원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이제는 당선자 롬니 주지사가 소수 아시아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인 정치 부재 상황에선 우리 한인 사회는 그의 임기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각종 지역사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트 롬니의 당선 소식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한인이민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략 70% 이상의 선거인이 “영어만을 쓰게 하는 법안”을 지지하였는데, 골자는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ESL

Above all, I thank each and every one of the board members and officers of KACL-NE for their time and hard work; and especially my utmost appreciation extends to Dr. Eui-In Lee for his spirit of sacrifice and dedication in making this 2003 Journal published with success.

It has been already 13 years since KACL of New England was founded upon the advancement of a civic cause - "Korean American Political Empowerment." As we are marching towards that goal and ambition, KACL has become a role model for other ethnic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is New England areas. The Chinese-American community, for example, is far greater in population and in the number of organizations. However, when I had a chance to introduce KACL's activities and events, they are even envious of our concerted and more systemized community work for others. They desire to take after us by keeping eyes on our event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most acknowledgements with encouragement extend to our young political internship program, through which 20 young interns have had valuable and unique experience every Summer in the politician and government offices in the New England area. In addition, they oftentimes express the praise for our US Citizenship Workshop programs, which took place constantly on a regular basis, two to three times every year. This priceless and time-honored tradition should be kept in our hearts in great pride; and keep it up for the incoming year of 2003.

As our readers are aware, the year 2003 signals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 Dr. Kyung Min Park in his service as president of Centennial Committe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produces a number of projects. Most recently as a part of these projects, KACL co-hosted a speech event entitled "Education of Second Generation And Identity of Korean-Americans Overseas" by having invited an anthropologist Dr. Kwang Kyu L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rue meaning of the Centennial directly relates to US Citizens' civil rights movement of KACL. A recent statistics reveals that 70% of the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born in the Korean soil and immigrated into the United States. Since a century ago, the Korean immigrants historically have played active and predominant role in any civic associations throughout today.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encourage KACL'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vents to be organized by Centennial Committee in the next coming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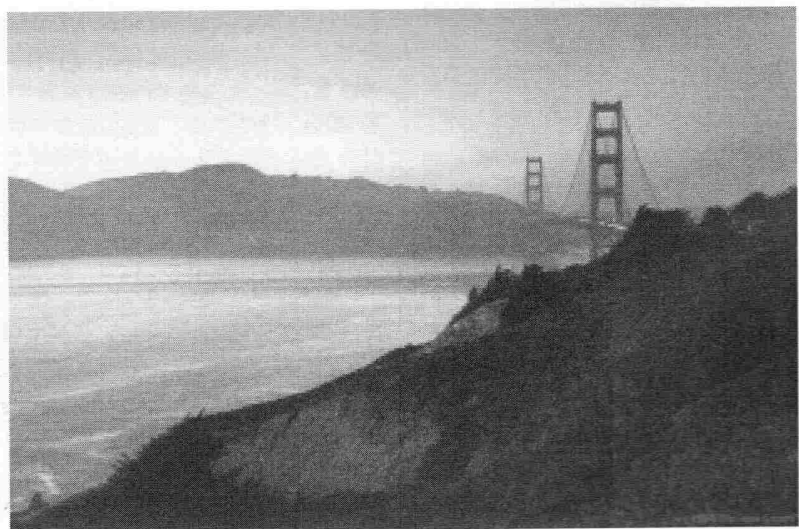
In November 2002 gubernatorial election, Mitt Romney (Republican) was elected as the Governor of Massachusetts. About 4 years ago same time, KACL as an organizational entity formally endorsed the then Democratic candidate Scott Harshbarger displaying genuine interests in Asian political rights, who unfortunately lost the election. Unlike the past, KACL did not support nor endorse any of the candidates in the 2002 election, even though the Chinese organizational community supported Shannon O'Brien (Democratic), who expressed her commitment to the betterment of Asian Americans' political rights. In the presence of Mitt Romney being a Massachusetts Governor for the next 4 years, no one anticipates what to transpire in the Asian-American politics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In this unpredictable political climate, the members of KACL will be required to voice out our Asian civil rights more than ever.

What makes the matter worse, in the same November 2002 General Referendum the voters of Massachusetts passed

so called "English Only Law". As a result of the passage, ESL classe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no longer afforded influencing detrimentally Korean-American school age children, not to mention the complete termination of bilingual teachers and educators. It becomes quite evident that the current American society in general no longer accepts the concept of a "melting pot" where every ethnicity respects to each other the language and culture of others. In this right wing tradition, the concerned citizens of many minority communities are now afraid of consequential and alarming effects on other minority economic policy as well.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limate blinding against minority issues, we as members of minority communities in America should focus our attention more on this political currents; and actively practice in the political process in this country by registering and showing up in every town/city and state elections, so that no more enactment against our political rights can be passed in the New England areas.

In closing, I can't thank enough for every one of two hundred eighty three KACL members; for advertisers of the 2003 Journal; and for the directors of the KACL board and officers. Without your concerted efforts and sponsorship, no KACL exists. I respectfully urge you to be a continuing KACL member standing for our cause to the last.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매사추세츠 주지사 제인 스유프트

Jane Swift, Governor, Massachusetts



JANE SWIFT
GOVERNOR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02133

(617) 727-3600

September 2002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extend congratulations on the twelf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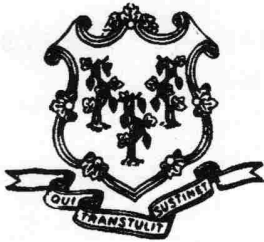
Since its inception in 1990, KACL-NE has encouraged active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has served to educate people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meaningful citizenship. Through leadership and community activism, this organization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contributing to our communities and appreciating our rights and duties as citizen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Massachusett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ommonwealth's economic and cultural vitality, and I commend KACL-NE's commitment to helping others and to making a positive difference in the lives of man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ane M. Swift", written over a circular flourish.

Jane M. Swift



JOHN G. ROWLAND
GOVERNOR

STATE OF CONNECTICUT
EXECUTIVE CHAMBERS
HARTFORD, CONNECTICUT
06106

October 15, 2002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 436
Boston, Massachusetts 02108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Connecticut, it is a pleasure to extend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you celebrate the 12th annual publication of your journal.

With such a rich history and culture,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Connecticut and our Nation.

I commend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for their dedication in serv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our Korean-American resident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s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c system that makes our country so great.

Please know that you have m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JOHN G. ROWLAND
Governor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State House
Providence, Rhode Island 02903-1196
401-222-2080

LINCOLN ALMOND
GOVERNOR

September 10, 2002

Mr. Song-Kun Kim, Esq.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436
Boston, MA 02108

Dear Mr. Kim & Colleagues:

On behalf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I extend warm greetings to the participants of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especially to those Rhode Island members who contribute to your success.

In addition to serving as the voice of the Korean-American residing in New England, your league encourages participation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Your informative and educational features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Americans in Rhode Island to inform their elected officials of issues that concern them. Your leadership and guidance in our society and our community is essential and very much appreciated by all the New England states.

Please accept my warmest wishes for another productive and successful event. As always, I look forward to receiving and reviewing a copy of your annual publication.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that reads "Lincoln Almond".

Lincoln Almond



October 10, 2002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Massachusetts, I am honored for the opportunity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and warm greeting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I am continually impressed with the KACL-NE's efforts to encourage and support political activism and education amo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Your commitment to give young peopl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he League's efforts in encouraging citizenship, voting, and political engagement help the entire community to strengthen their political voice. In addition to playing a vital role, these impressive efforts show a strong dedication to Korean-Americans and are an inspiration to all.

I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and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the KACL-NE's future activities and success in the years to come.

Warm regards,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ohn F. Kerry".

John F. Kerry
United States Senator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MARTIN T. MEEHAN
FIFTH DISTRICT
MASSACHUSETTS

October 31, 2002

Song-Kun Kim, Esq.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436
Boston, MA 02108

Dear Friends:

Greetings!

As U.S. Representative for the Fifth Congressional District of Massachusetts, it is my sincere pleasure to be included in the 12th Annual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I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you continued and outstanding leadership in actively promoting the ideals of this nations's democracy. KACL-NE has done a remarkable job of encouraging Korean-Americans to become actively engaged in our nation's political process.

Moreover, KACL-NE has done exemplary work in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voices of Korean-Americans to be heard. Your organization genuinely embodies the treasured principles upon which this nation was founded. Our nation is stronger for your leadership, dedication and patriotism.

I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coming year.

Sincerely,

MARTY MEEHAN
Member of Congress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미 연방 하원의원 마이클 카푸아노

Michael E. Capuano, United States Congressman, 8th District, Massachusetts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Democratic Regional Whip

Democratic Steering & Policy
Committee

www.house.gov/capuano/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Michael E. Capuano
8th District, Massachusetts

WASHINGTON OFFICE:

1232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2108
(202) 225-5111
FAX: (202) 225-9322

DISTRICT OFFICES:

110 FIRST STREET
CAMBRIDGE, MA 02141
(617) 621-6208
FAX: (617) 621-8628

ROXBURY COMMUNITY COLLEGE
ROOM 110

October 24, 2002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436
Boston, MA 02108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Eighth District of Massachusetts, I extend my congratulations on the twelf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This year marks the continued success of KACL, and I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included in this year's publication.

Hardworking Korean-Americans are a growing, vital force in the culture and the economy of Massachusetts. As a Member of Congress, I am encouraged by their growing activism. Since 1990, KACL has done stellar work assisting citizenship applications and voter registration, promoting civic education, and engaging in political advocacy. Your efforts reflect great dedication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the New England community at large.

Again, I wish you and all members of KACL continued success. If my staff or I can be of servi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incerely,

Michael E. Capuano
Member of Congress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워싱턴 주 상원의원 폴 신 박사
Paull H. Shin, Ph.D., State Senator, Washington



Washington State Senate

Senator Paull H. Shin, Ph.D.

Vice President Pro Tempore
21st Legislative District

Olympia Office:

412B Legislative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Phone: (360) 786-7640
Fax: (360) 786-7524

District Office:

19707 64th Avenue West, Suite 109
Lynnwood, WA 98036-5958
Phone: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_pa@leg.wa.gov

September 9, 2002

Mr. Song-Kun Kim, Esq.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94 Washington Street, Suite 436
Boston, MA 02108

Dear Mr. Kim,

On behalf of the Washington State Senate, it is my sincere pleasure to be included in the 12th Annual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Since its inception in 1990, the KACL-NE has proven its commitment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rough its many noteworthy endeavors. The KACL-NE not only ensures that Korean-American interests are represented in the democratic process, but also that Korean-Americans are educated to be good U.S. citizens. Indeed, the KACL-N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lives of Korean-Americans viv-a-vis the political process, while serving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our democracy. I commend the KACL-NE for its continued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for its worthwhile contributions to American society at large.

Thank you for your inspirational leadership and guidance on behalf of all Korean-Americans, and may you enjoy continued success in the years to come.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ull H. Shin', written in a cursive style.

Paull H. Shin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대한민국 주보스톤 총영사 박재선

Jayson Park, Consul General, Republic of Kore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GATEWAY CENTE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 FAX: (617)641-2831

October 9, 2002

Dear Friends,

First, I would like to extend to all of you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the Annual Journal 2002-2003 by the KACL-NE.

Preserving the genuine cultural asset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midst of the multiple diversities, which is the United States, is often a difficult mission for them. Nevertheless, Korean-Americans in New England, under the inspiring leadership of the KACL, are now achieving their primary goal of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local issues in particular. Besides, the KACL-NE made a tremendous effort to help young Korean-Americans to actively take part in local, state and regional political arenas during the past years.

So, I sincerely hope that this outstanding mission of the KACL-NE will bring about more fruitful results in the future.

Yours tru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 Park',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Jayson Park
Consul General of Korea

한 국인의 자존심을 살려준 월드컵의 4강 진출을 한국 축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한국 사람은 한테 뭉칠 수 없다고요? 붉은 악마가 한반도를 휩쓸더니 뒤따라 수마가 응원의 물결을 삼켜버렸습니다. 수재민을 위하여 서로 돕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성숙한 모습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쟁장인 이 미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품을 비롯한 여러 품목들이 어깨를 겨루는 모습은 한국인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력의 상징인 쌍둥이 (월드 트레이드센터) 빌딩이 테러단에 의해 잿더미로 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구조대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정계와 성심껏 구조의 손길을 보내는 미국민의 태도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거품가치라고는 하였지만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비관심적인 경영자의 경멸한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은퇴 후의 노후대책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졌으며 각 인종을 초월하여 보여준 애국심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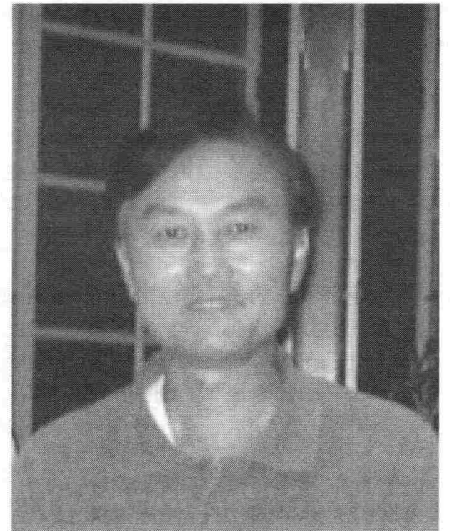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주지사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 관리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심적이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저마다 선거공약을 늘어놓았지만 빈번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으로 의식주의 염려 없이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주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Enron이나 WorldCom등의 파렴치한 수치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민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본 협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도움을 주는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매년 2회 실시되며 차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인턴프로그램과 정치인턴후원 모금만찬 등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지사, 법무장관, 연방상원의원들의 사무실에서는 본 협회의 추천을 기꺼이 수락하며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한국정부의 후원도 진행 중이며 본 협회의 추천자가 차세대 지도자 교

육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도 본 협회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협조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본 협회의 존재는 협회원 여러분의 12년간 수고하신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사님들, 협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세대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진보적 협회를 이루기 위하여는 이곳 문화에 동화된 차세대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협회는 보다 많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또한 활동적인 유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와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며 기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행**



We saw the miracle of Korean soccer. It advanced to the quarter finals. We saw the wave of "Red Devil" roaming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We saw one of the worst floods. But we also saw the proud Koreans helping each other in the time of disaster. Korean products, such as semiconductor devices, automobiles and electronics equipment, compete with the American and other countries goods here shoulder to shoulder. We are very proud of it.

We also saw fellow Americans - firefighters, policemen, emergency workers, and volunteers - helping the wounded in the ashes of World Trade Center disaster. They focused on the solutions of the emergency situation, and tried to give helping hand and money as best as they could. Even though the stock market tumbled, the economy worsened, and the future of social security darkened, patriotism shown in time of need which was founded on the puritan spirits definitely showed that there is a real hope in this country.

This year we are going to elect local community officers including governors. We need the leaders who can and will work for the commonwealth of citizens. We don't want the untrusty leaders who

throw out empty promises to us.

There is a saying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We must help ourselves by participating political processes such as voting. KACL sponsors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upports political interns through fundraising parties. Governor's office, Attorney General's office

(Continued to page 15)

송기백 이사장은 1969년에 한양공대 기계 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에 도미한 후 7년동안 코네티컷주에 있는 Gleisner Coach Work에서 기술감독으로 일하였고 6년동안 매사추세츠 주의 부락톤에 있는 Automotive Design In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데드햄에서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세탁관련 장비 및 물품공급체인 Norton Supply회사의 판매도 담당하고 있다.

Mr. Gi Baeck Song, chairman, graduated from Han Yang Engineering College (major in Mechanical Engineering) in 1969 and came to America in 1974. He worked as a technical supervisor at Gleisner Coach Work in Norwalk, Conn. for 7 years, as a general manager at Automotive Design Inc. in Brockton, Mass. for 6 years. He manages a dry cleaner shop at Dedham since 1989. He is also a salesperson for Norton Supply which supplies equipment and materials for dry cleaners.

시민협회의 2002년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제11차 정기총회

2001년 10월 27일(토), 베드포드 소재 보스톤 성결교회에서 신상철 부회장의 사회로 오후 6시부터 9시경까지 개최되었다.

김성군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회순 채택 등이 있었고,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송기백 이사장의 인사와 이사 인준 및 선출이 있었으며 감사패 수여의 순서가 있었다.

제2부의 강연에서는, 현재 한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미연방의 최고위직에 있는 전신미연방 여성 노동국장이 '21세기 노동력 -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비전 및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제3부에서는 보스톤성결교회 성도들께서 마련한 다과를 들면서, 친교와 간담의 시간이 밤 9시까지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참석 해주신 보스톤 한미노인대학의 많은 분들과 박경민 노인대학장께 감사패를 드린다.

2. 시민협회 회지 제11호 발간

총회에 맞추어 10월에 3,000부가 발간되어,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가정을 비롯해 각종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백악관, 상원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에게 배부되었다.

누차에 걸친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원고청탁, 광고청탁 및 광고비 청구 작업 등이 있었고, 이에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고와 특히 광고 모집을 위한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다.

이의인 편집위원장께서 9호에 이어 10호와 11호의 제작을 맡아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며, 역시 이의인 위원장의 수고로 제12호 회지가 2002년도의 총회 이후에 총회에서의 신임 회장의 선출 및 임원 선출을 반영하여 발간될 예정이다.

3. 이사회 및 임원회

2002년 2월 2일(토), 제43차 이사회가 오수택 간사 자택에서 개최되어, 총회 결과 평가, 정치 인턴 모금파티 준비, 시민협회 소식지 발간, 회지 배부 현황, 분과위원회 개편동의 및 내규인준,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6월 15일(토)에는 제44차 이사회가 Great Wall Restaurant에서 개최되어, 정치인턴 후원 모금 및 인턴 배치 현황, 회지 제11호 광고비 수급 및 이사회비 납부현황, 시민권 취득 워크샵 결과 등의 보고를 받았고, 총회 준비, 회지 제12호 발간 준비, 회장단 및 분과위원회별 사업 계획 등의 토의가 있었다.

9월 21일(토)에는 최홍균 전임회장 댁에서 제45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정치인턴 프로그램 결과 보고, 정기 총회 준비 상황 보고, 회지발간 등의 각종 보고가 있었다. 이어 정기 총회 준비(회장단 추천, 시민권 취득 워크샵), 정치인턴 모금파티 준비 등의 토의가 있었는데, 신임 회장으로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외에, 상임이사회를 위시하여, 인턴 모금 파티 준비 모임 등, 각종의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4.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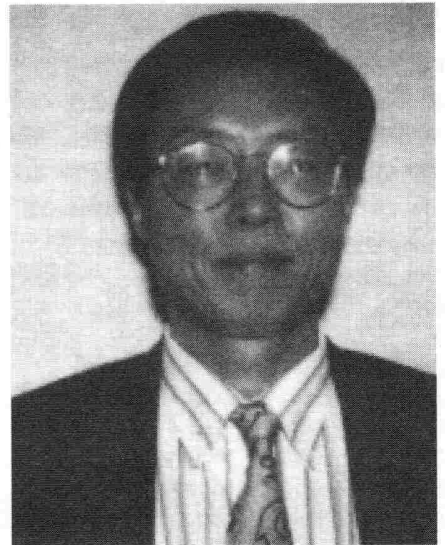
2002년 4월 13일(토) 오후 6시에, 발링톤 소재 매리오프 호텔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턴 후원 모금 만찬이 개최되었다. 제1부는 WGBH의 manager인 이효춘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턴 4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총 4,000달러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박재선 보스톤 총영사의 축하인사에 이어, 2부의 순서로 만찬이 있었고, 이어 3부에서는 바이올린 및 피아노, 첼로 독주, 바리톤 독창, 현악 사중주 등이 있었다.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과 단체, 참석하신 여러분들, 추진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5. 시민권 취득 워크샵 개최

2002년 6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북부보스톤교회에서, 그리고 금년의 총회일인 10월 26일(토)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무료로 시민권 신청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이 워크샵에서는 협회 임원인 김성군 변호사를 위시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으며, 연인원 70여명이 시민권 신청을 완료하며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6. 기타

한편 시민협회의 활동을 알리며 홍보를 겸하는 시민협회의 소식지 범호가 발간되어 회원들에게 우송되었으며, 한인회보 및 지역신문, 한국일보 등의 신문지상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시민협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주요 기사로는 후원 모금파티, 시민권 취득 워크샵, 총회 등을 들 수 있고, 각종 행사의 광고가 누차 게재되었다. **시현**

김명기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 해외사업본부, Multi-Core, Inc.의 Document Control Center Director를 거쳐 Quality Engineering Consultant, H&E Septic Design Co.와 Veggies'n More를 운영했으며, 현재 무역업체인 H&E Korea Co.를 경영하고 있다. 새싹한국학교 교장,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임원, 중앙일보 본사 모니터를 거쳤으며, 현재 한국광고연구원의 미주통신원, 제일기획 등 광고업계의 프리랜서로서 Sub-surface Disposal Systems Designer 및 Installer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Summary

Eleventh Annual Meeting

The Eleventh Annual Meeting was held on October 27, 2001 at Boston Evangelical Church in Bedford, MA. Mr. Gibaek Song was elected as the new board chairman and several new board members were also elected. Honorable Mrs. Sinae Chun, gave the keynote speech, entitled "Asian/Korean-American Vision and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Workforce."

Publication of the 11th Journal

3,000 copies of the 11th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Korean-Americans residing in New England as well as many politicians, local libraries, White House and many organizations.

Board Meetings, Other Meetings

There were three Board Meetings, and many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League. There were also one special Meeting for the study of the 501C(3) application and two Editorial Meetings to prepare for the 10th Annual Journal.

Summer Political Intern Support Program

A fundraising party was held on April 1, 2000 at the Burlington Marriott Hotel to raise funds for summer political interns. About 250 people attended the party. Stipends of \$1000 each (total of \$6000) were paid to the following six students: Arum Pak (Bowdoin College, MA Governor's Office), Song Yee Han (Brandeis University, MA Representative's Office), James Sunghoon Uhm (Tufts University, MA General Attorney's Office), David Solomon Kim (Tufts University, US Senator Edward Kennedy's Office), Benjamin Smith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MA General Attorney's Office), and Eun Young Choi (Harvard University, US Senator John Kerry's Office). The MC of the event was Ms. Debbie Kim, an anchorwoman with Ch. 25 News. Guest speakers were Mr. David Lee and Sarah Park, two last years recipients of KACL's summer political intern scholarship, and Ms. Miller Kim, the president of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 After the dinner, there was an entertainment program featuring Korean

drum dance performed by Sinae Cheh, and several solos and duets performed by the students from New England Conservatory.

Citizenship Workshop

KACL hosted three citizenship workshops (10/23/99, 6/17/00 and 10/28/00) in which people received assistance with their citizenship applications, including N-400 preparation, photograph, an envelope with the INS address, and legal counsel from attorneys.


Election Pamphlet

1,000 copies of the election pamphlet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the Korean voters. This pamphlet contains the general informations about the US governmental, jury and congressional systems, election processes and especially the political issue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this year. An election guide published by NAKASEC was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Other Activities

Advisor Yangkil Kim received an award for his outstanding service to the community at the Asian-American Unity Dinner. He was newly elected as one of the board co-chairmen and served the KACL as the president before Dr. Hong Kyun Choi.

President Hong Kyun Choi attended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 (LOKA) and discussed abou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ly collaborated organization. Several LOKA members were also attended the second fundraising party for the Political Interns.

Advisor Kyung Min Park retired on January 28th of this year, and many members attended the retirement party held at Crown Plaza Hotel in Framingham. Also he served as a Census committee head to inform and encourage Kore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2000 Census with many helps by the members of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and the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English translation by Eui In Lee)

Message from the Chairman


Gi Baeck Song, Chairman of the Board

(Continued from page 13)

and Senate offices are gladly accept KACL recommended interns. Korean Consulate in Boston is also trying to help us through Korean Government. We are getting help from not only American government but also Korean government as well.

We worked hard for the last 12 years. I'd like to thank Mr. Song-Kun Kim, the president, other officers and board members, and all the members for their support and contributions. But in order to step up our efforts and to achieve better results, we need new ideas and initiatives from the next generation elites as well as the renewed participation from the first generation.

I pray the grace of our Lord be with you, your families and your businesses.

 (English translation by Eui In Lee)



〈편집자주〉 아래에 게재된 글은 2002년 10월 26일에 열린 제12차 본 협회 총회에서 본 협회의 초기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본 협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김영집 박사의 기초연설문입니다. 김박사의 양해 아래 부분적인 편집과 수정을 하였고 지면 및 시간관계상 영어번역은 하지않았습니다.

다시 만나 뵈오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시민협회를 지난 십 여 년 간 꾸준히 키우셔서 한인계 시민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품게 하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부족함 저에게 주시고, 회지 10·11호를 보내 주신 김 회장님 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십 여 년 전에 협회를 창립하고, 역원들(지금의 임원회와 이사회)이 모여서 거론하던 계획들이 이제는 다 본 궤도에 올라, 바른 방향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에 맞추어서 Website를 만들어 홍보에도 현대화를 힘쓰며, 지방과 전국적인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협회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정후원을 하신 여러 단체들·교회들·사찰·사업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연례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상하의원들·주지사들·한국 총영사가 축하하는 글을 보내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그간 성취한 업적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저는 근 10년 전에 이곳을 떠난 후, 이 지역에 사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단결하여 시민협회를 이끌어 가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보람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본 협회는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현장 제3조, 목적 3항은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이요, 4항은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건국된 이후 1861-1865년에는 노예해방을 위하여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620,000여명의 병사들이 생명을 바쳤고, 1920년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

고, 1963년에는 200,000명 이상이 Washington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자유행진이 있었으며, 1964년에 고용, 유권자 등록, 공중시설에 인종차별이, 1968년에는 주택을 매매할 때나 세줄 때에 인종차별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실로 미국의 역사는 비록 짧으나, 국민과 지도자들은 사회 부조리가 드러나는 대로, 그를 힘써서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하나의 사회부조리를 냉정하게 바로 보는 지도자가 나서서, 대다수의 국민을 한마음과 생각으로 굳게 단합하도록 이끌어, 그 부조리를 신속히 극복한 나라는 몇몇하게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러한 지도자를 모시지 못한 나라는, 비록 역사책에서는 위대한 과거를 자랑하나, 지금은 겨우 이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면 얼마나 많고, 끔찍한 사회 부조리가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늘어나고, 새롭게 생기지 아니 합니까? 재미 한인들의 앞날은, 시민협회 회원들이 우리와 뿌리가 다른 이웃들과 손에 손을 잡고, 위에 말한 두 항목에서 명시한 대로, 사회 부조리 개선과 사회 발전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협회의 일은 우리가 하다가 우리 자손들이 이어받고, 다시 우리의 3세, 4세, 그들의 후손에게로 이어 갈 것입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 현장에 이와 같은 귀중한 항목들을 포함시킨 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한 나라나 전 인류에게 공헌한 모든 귀한 사업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협회 회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다 각자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결심하고, 위의 목적 항목들을 현장에 포함시킨 줄로 믿습니다. 급격한 국내외의 변화가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협회회원들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민족이 배출한 뛰어난 지도자 한두 분을 찾아, 그분들의 생각과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860년을 전후하여 조선의 마지막 왕조가 차츰 쇠퇴하여져서, 국내의 민생고가 심해지고 마침내 동학운동이 민란으로 변하고, 무력한 정부가 외세의 힘을 빌려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국도는 청국(China)·일본·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세계 조류에 맞추어서, 한반도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뚜렷한 독립

된 나라를 세워보자는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인 미국 이민 사에, 즉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공헌한 분이 있으니, 그분은 안창호 선생이요 그의 호는 도산입니다. 1982년에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 of 한 국관 입구 좌측에 전시된 세 대형 초상화 중에 하나가 도산의 것이었습니다. 전 서울대총장 장리욱 박사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선구자·개혁자·정치가·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의 일생은 거룩한 순국의 생애였다.'라 하였고, 전 연세대 총장 백낙준 박사께서는 '실천력이 있는 이상적 애국자로서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조하려는 데 뜻을 둔 민족 전체의 도산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도산은 1878년 평남에서 태어나셨고, 20세에 독립협회에 가입했고, 25세(1902년)에 청운의 뜻을 품고 부인 이해련 여사와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10여명의 한인 인삼 장수와 교포 유학생들이 10명 가량 있었습니다. 도산이 보니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인삼장수들이 상투를 부여잡고 싸움질을 하고 있으며, 백인들은 재미가 있는 듯 낯선 외국인들의 추한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산이 동포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알아보니, 그들의 거주 환경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유학생들 이강·정재간·김성무와 교포들의 생활개선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그들이 도산의 기본 생활비를 벌어서 대기로 하고, 도산은 그렇게도 애써서 입학하여 공부하게된 것을 당분간 중단하고, 교포들의 집을 청소하며, 그들의 생활 환경 미화도 해주면서, 인삼 상인들에게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촉구했습니다. 불과 1년만에 교포사회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청년 도산의 헌신적인 교포생활 개선에 감탄한 한 미국인이 한인들의 사용을 위하여 회관으로 쓸 수 있는 집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6세에는 그와 박성겸·이대위·김성무 등의 발기로 '한인천목회'를 조직 하니, 이것이 미국에서 태어난 첫 한인 단체로 공립협회를 거쳐서 국민회로 발전하였고, 해외 독립 운동의 중추 단체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로 한인들이 일터를 찾아 모여드니, 도산도 샌프란시스코의 일은 친목회에게 맡기고,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여, 그곳으로 모여드는 한인 굴농장 노동자들은 위하여 노동자 캠프를 세우니,

그 회원이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 이곳에도 공립협회가 조직되어, 교포들에게 생활지도를 했습니다. 190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공립협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고, 패시픽가에 공립회관을 설립했으며, 국문 판 공립신보를 창간했는데 이것이 신한민보의 전신입니다. 그 후 공립협회는 여러 지방회를 세웠고, 시베리아와 북만주에는 원동지회와 만주지회가 세워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단합하여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1894-5년)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청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나라의 운명은 날로 쇠퇴해더니, 1905년에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모든 국내 정치에도 일본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형편이 바람 앞에 등불 격이 되며, 공립협회는 '국내 정세를 직접 탐지하고, 국 내·외가 서로 힘을 모으라'는 사명을 그들의 청년 지도자 도산에게 위임하였고, 1907년 2월 일본을 거쳐 귀국하면서, 도산의 국권회복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길에는 동경에서 유학생들의 애국단체 태극학회의 간부들과 시국 토론을 하였고, 환영도 받았으며, 격려하는 연설로 청중의 심금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박영효를 만나 태극기의 뜻을 알아보았고,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을 만나서는 한국에 그때까지 애국가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도산은 각도출신의 동지들을 구하여 '새 백성이 되자'는 뜻을 지닌 비밀 정치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발기 조직하였으니 그 목적은 (1)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2)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 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3) 교육 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진흥할 것과 (4) 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등이었습니다.

평양 마산동에 이덕환·김남호 등이 발기하여 자기회사를 설립하게 하였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 매일 아침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는 훈화로 학생들을 고취하였습니다. 모란봉 밑에 공자묘가 있는 명륜당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도산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도산의 감격적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감격하였고, 그 청중에 끼어 있던 남강 이승훈이, 연단에서 내려오는 도산의 손을 잡고, "돌아가 그대 말대로 실천하기를 작정하겠소"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남강은 12월 24일에 오산학교를 세워 신민회 정신을 고취했으며, 신민회 주체 성원이 되었고, 자기회사를 직접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때에 통감부와 한인 지사들간에 중재역할을 하던 최석하의 주선

으로, 1907년에 도산이 이토히로부미(이등박문)와 만나, 내각 구성에 관한 담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산이 토론에 지극히 능란하여 상대방의 심중을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시대 조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909년에는 신민회의 표면운동이요, 근대 청년운동의 시작으로, 청년학우회를 조직하고 전국 9개 도시에 지방분회를 조직했으나, 그 목적은 무실(無失) (도산의 진리주의),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4대 정신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단체 생활의 훈련에 힘쓰며, 한가지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예를 반드시 학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날마다 지(知), 덕(德), 체(體)에 관한 수양행사를 한 가지씩 행하여 힘쓴다는 것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9일 하얼빈 정거장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격살하며, 일본 통감부는 독립지사들을 검거했으나, 도산도 대성학교에서 10월 30일 체포되어 용산 헌병대에 수감되어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 담판을 주선했던 최석하가 민간 지사들의 석방을 교섭했고, 도산 이하 여러 동지들은 안의사의 거사와는 무관함으로, 12월에 헌병대에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일동은 이갑의 집에 모여서 도산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구성 안을 다시 장시간 격론했으나, 도산의 내각 참여 거부로 결렬되고, 신민회 간부들은 최후대책으로 국내의 각 지역 책임자를 정하여 그들은 국내에 남아 있고, 해외 지역을 맡은 간부들은 각자가 탈출할 길을 찾아서,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고, 각 지역에서 신민회 운동을 계속하는 것만이 조국광복의 오직 하나 남은 길이라고 도산이 모임을 결론 지었습니다.

1910년 4월 8일 도산은 서울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고, 노일전쟁(1904-5년)에도 승리한 일본이 그해 7월에는 육군대신 데라우찌에게 한일 합방의 임무를 주어 새 통감으로 임명하고, 8월 22일에는 이완용이 한일 합방에 조인하게 하니, 이해가 경술년이라 이것이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의 마지막이 됩니다.

도산이 주재한 청도 회담에서는 무관 출신의 '급진론'과 도산의 '점진론' (서북간도·노령·만주에 사는 동포들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을 보급하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크게 거사할 준비부터 서둘러 하지는 안)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길림성에 땅을 구입하여 개간하고, 사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지는 절충안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도산이 책임진 지방이 유럽과 미주임으로, 미국에 돌아오기

위하여, 북경에서 필요한 여권을 발급 받아 가지고, 상해를 거쳐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국치의 비보를 들은 도산은 곁에서 보기가 꼭 민망할 정도로 비탄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민족이 대 수난에 처해 있음에도 해외 동포들간에 화목과 단합하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민족 개조'가 절실함을 느끼고, 그를 위한 수양단체로 흥사단의 조직을 이때에 구상했다고 합니다.

1911년에 미국에서 보내준 돈을 여비로 하여 시베리아 철도로 피터스버그에 가서 추정 이갑을 만나보고, 독일, 영국을 거쳐서 뉴욕에 왔고, 북미대륙을 횡단하여, 4년만에 가족과 다시 만나, 제2의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 공립협화와 미국본토와 하와이의 단체들이 단합하여 국민회를 창립하였고, 1910년에는 국민회와 (1905년에 대동교육회로 시작한) 대동보국회가 통합하여 '대한민국민회'를 결성했고, 북미·하와이·시베리아·만주에 지방총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12년 11월에 각 지방 총회대표들이 모여서 해외한인을 대표하는 중앙총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으로 도산을 선출했습니다. 국민회의 중심 사업으로는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대표로 이승만 박사를 워싱턴으로, 안창호 선생은 상해로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도산의 사상과 공로에 치중하여 시간을 보낸 이유는, 그가 헌신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노력으로 우리의 지금이 있게되었으니, 우리는 그의 사상을 더 연구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그를 본받기에 힘쓰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도산을 소개하여 그를 본받게 하지는 데에 있습니다.

잠 시 화제를 달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백범 김구선생이 일찍이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나라를 구해 보려는 생각으로 동학운동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안중근 의사의 부친 안태훈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한문학자 고능선 선생이 그에게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확실히 말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현(sages)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자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힘써 가노라면 성현의 지경에 달하는 자도 있고 못 미치는 자도 있거니와 이왕 그대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될 뜻을 가졌으니 몇 번 길을 잘못 들더라도 본심만 변치 말고 고치고 또 고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목적지에 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괴로워하지 말고 행하기만 힘써라.

여기에서 우리민족의 정신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현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 상편의 머리말 '인 신 두 어린 아들에게'에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너희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니 동서와 고급의 허다한 위인 중에서 가장 숭배할만한 이를 택하여 스승으로 섬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인은 그 어느 나라의 시민이던 간에, 한 민족이 배출한 지도자를 따르기가 마음에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보이기에, 한인들, 특히 백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이 스승으로 생각하고 본보기로 따를 수 있는 분을 찾은 것이 도산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그의 저서 『도산 안창호』에서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의 필생의 사업이요 그의 민족 운동의 근본 이론이요 실천이다"라 썼습니다. 평론가 임중빈 선생은 그의 저서, 『도산 안창호: 그 생애와 정신』에서 "국민회는 조직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의 대변 기관으로서 큰 구실을 하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대중적이며 정치적인 운동으로써는 민족 운동의 핵심적 정예의 양성이 어렵다는 것을 (도산이) 깨달았다"라고 썼습니다.

도산은 1912년 어느 날 첫 동지로 송종익을 만났고, 다시 인물을 물색하여 정원도·하상옥·강영소 세 사람을 얻어 이들로 발기인을 삼고, 다시 근 1년이나 걸려 조선 8도에서 각각 한 명씩 창립 위원을 채워 1913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충청도 대표 유석 조병옥은 "하와이와 미주에서 많은 독립 운동 지도자들과 만나 보았는데, 도산만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진 인사임을 토론을 통하여 알게 되어 흥사단에 몸을 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산이 기초하였고 후에 정식으로 채택된 흥사단 약법에는 "본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총의 남녀를 단합하여 정의(감정과 의지)를 돈수(깊이 닦음)하고, 덕·체·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하고 신성한 단결을 조성하여 우리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있다"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흥사단 본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지부가 각지방에 있었고, 입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문답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비 단우로 6개월 이상 활동을 충실히 한 후 다시 문답식과 오른손을 들고 서약례를 거쳐 통상단우가 됩니다. 문답은 문답위원과 단우 후보자가 저마다 믿는 신앙에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위원이 먼저 질문하면 후보자는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질문들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후보자에게 적합한 질문을 했습니다. 도산이 직접 위원이 되어서 행한 문답의 내용을 읽으면, 흥사단 약법의 내용을 깊

이,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단우들은 입단금과 예연금·의연금·기부금·적립금의 이식으로 재정을 부담했습니다. 20대의 청년으로 단우가 되어 활동한 분으로, 우리 귀에 이름이 익숙한 분들은 백낙준·정일형·장리욱입니다. 단의 기관지인 『기러기』에는 '낙심과 절망은 곧 정신의 자살'이라는 도산의 격려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다만 말하기를 낙심과 절망의 두 가지에서 더 두렵고 삼갈 것이 없다 하노라. 대개 낙심과 절망은 사람의 정신 활동을 감쇄하며, 능히 생각할 만한 일도 생각지 못하며, 능히 행할 만한 일도 행치 못하고 앉은자리에서 자진(自盡)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니, 이는 곧 정신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말 지로다. (중략) 무릇 낙심한 자와 절망한 자들을 보면, 그 뜻은 항상 불평하고 그 정은 날로 비울(瘳鬱)하여 가히 기뻐할 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가히 사랑할 것도 사랑하지 못하여 세상은 싫고, 사람은 밉고, 일은 괴롭고, 맛은 써서 이 세상에 반점의 흥취와 일호의 유쾌가 없는 고로.(중략) 우리는 확실한 희망을 일으켜서 저 낙심과 절망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민족의 빛이 되며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 제를 대한인국민회와 상해 임시정부와의 관계로 돌리겠습니다. 1919년 2월 8일에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며, 3월 15일에는 미주·하와이·멕시코 재류동포 전체 대포회를 소집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 총회장 도산이 포고문을 발표하여, 중앙 총회 예산 \$76,000과 원동과 구미 각지에 독립운동 경비 조달을 위하여 일반 동포에게 애국 특연금을 징수할 것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의 6항에 정한 대로 도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봉사할 의무를 지니고, 1919년 4월 5일 상해로 떠났습니다.

그 얼마전인 3월 17일에는, 만주와 노령에 산재해 있던 지사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 대한인국민회의를 조직하고 21일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원 8명을 선정 발표했고, 상해에는 3.1운동에 참여했던 국내 지사들이 몰려왔고, 지역별로 대의원들을 뽑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4월 10일에 프랑스 조계에서 대의원 40명이 모여 그 모임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 정하고, 4월 11일에는 제1회 임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한 후, 국호와 관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6명의 총장과 6명의 차장을 선출하여, 내각책임제 임시정부를 세웠

고, 국내에서도 4월 22일에 13도 대표 24명이 비밀 국민 대회를 소집하고, 집정관 총재·국무총리와 9부총장을 선출하여 한성 정부를 조직하니, 세 다른 지역에 임시정부들이 세워졌습니다. 안창호의 이름만은 세 정부 각료 명단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세 임정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도산은 6월 28일에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에 취임한 후, 즉시 미국 대한인국민회에 자금을 요청하여, 얼마 후 \$25,000이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프랑스 조계에 임시 정부 청사를 설치하고, 각 부 직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세 정부의 원만한 통합을 위하여, 도산이 8월에 의정원에 제출한 임시헌법개정안이 9월 초순에 통과되었고, 정부 내각원을 새로이 선출하여, 11월 3일에는 드디어 독립운동 총본부에서 새 국무위원 취임식을 거행하니 도산은 그의 뜻에 따라서, 내무총장의 자리에서 노동국 총판으로 내려앉아, 봉사하는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도산이 상해에서 만난 춘원은 그의 저서에서 "도산의 신념에 의하면 민족의 각원이 서로 믿게 되는 날이 우리 독립이 완성되는 때요, 세계 만국이 우리 민족의 한마디 말과 한 번 행동을 참이라고 믿게 되는 날이 우리가 세계 개조에 공헌하는 때요,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이 서로 속이지 아니하고 서로 믿게 되는 날이 세계에 참되고 오래 갈 화평이 오는 때이다. 이 길밖에는 우리의 독립도 창성(prosperity)도 세계의 평화도 없다는 것이 도산의 굳고 굳은 믿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어서 잘 아는 대로 상해임시 정부는, 국무위원들이 화목하고 단합하는 민주적 훈련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산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지도자들을 끈기 있게 화해시켜서, 1921년 1월 1일에는 임정 거두들이 다 모여서, 신년 축하회를 가졌습니다. 도산은 국무총리직을 맡으라는 김구 선생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은 사양하고, 내각 단합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1920년 봄부터 도산은 흥사단 사업을 중국에서도 일으키기로 하고, 장소를 정한 후, 흥사단 운동위원부를 설치했으며, 상해에서 처음 얻은 동지는 이광수이고, 2·3년간에 주요한·김도연 등 48명의 동지들을 입단시켰습니다.

백범의 자서전 마지막에 해방 후 추가한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이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

이 이 사명을 달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일차 이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탄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 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1 994년 통계에 의하면 남·북한의 인구는 7천만이며 전 세계의 한인 교포는 5백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단된 한국의 통일을 도와주고, 따라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진로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재미한인 단일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1919년에 뛰어난 선각자요 애국자인 도산을 대표로 상해로 파견하고, 그를 통하여 임시정부의 청사를 준비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남·북한은 차츰 서로 화해하려고 애쓰다가, 북한이 그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여, 미국과 한국 주변국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한인미국시민협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열거하겠습니다.

1. 진행중인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하십시오.

2. 한인 필독의 교양 서적을 선정·번역·출판하십시오.

3.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각자가 대를 이어 살기로 선택한 국가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고자 하는 기상과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를 모집·선정하여, 시민협회 모임에서 배우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4.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며 관리하십시오.

5. 미국 각지에 있는 한인 미국시민단체들을 연합 혹은 통합하여 단일단체로 세우십시오.

6. 한인 미국시민단체가 없는 지역에는 도와서 지방회를 조직하십시오.

7. 흥사단을 본으로 하여, '정예' 지도자들을 세계 도처에서 양성하기 위한, 대중적이 아닌, 비종교적 수양단체의 조직이 필요한가 검토하십시오.

8. 한인 단체의 훈련과 수양을 위한 기관 혹은 이상촌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9.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있는 한인 시민단체들의 연합회를 조직하십시오.

10. 법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고, 모든 활동에 필요한 규정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국 한인계 시민들은 이 사업들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간다고 확신합니다. 도산이나 백범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한국 땅에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칠 천만이 한반도에 살아 있고, 우리민족이 세계 평화에 헌신하기 위하여, 오백만 한민족이 세계 백 여 나라에 지금 살아 있다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이 너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침]**

참고 서적

1. 이 광수, 도산 안창호, 서울 대성문화사, 1973
2. 임 중빈, 도산 안창호: 그 생애와 정신, 서울 명지사, 2000
3. 김 구(편집 겸 발행인: 김 신), 김구 자서전 백범 일지, 서울 천풍인쇄주식회사, 1971
4. 김경하,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5. 김창열, 이민 사관, 한인 교육연구, 5권 2호,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가나안인쇄주식회사, 1994
6. 김중순, 코리언 아메리칸 도산 안창호, 한인 교육연구, 6권 1·2호,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가나안 인쇄(주), 1995
7. 재외국민용 한국사,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교회사, 1990
8. The World Book Encyclopedia,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1976



〈편집자주〉 아래에 게재된 글은 2002년 7월 18-20일에 '지구촌 한민족 정체성 개발 특별 심포지움'이라는 주제 아래 필리핀에서 열린 제20차 재미한인 학교협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서울대학교 이광규 명예교수의 원고로서 이교수님의 양해 아래 전문을 게재합니다. 지면 및 시간관계상 영어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인류 역사의 특징의 하나가 민족들의 이동이다. 유럽의 식민지宗主국들은 통치의 방법으로 식민지간의 인구를 이동시키었으며, 특히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기 위해 식민지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예컨대 인도인을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인을 유럽으로, 유럽인을 동남아시아로 대이동을 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로 대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지면서 전쟁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주하여 갔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의 이동에서 말하자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제시대 직전 한국인들은 가난과 우국의 열정으로 연해주와 만주로 대거 이주하여 갔다. 일제시대는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특히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었다. 해방 후 수십 만명이 일본, 만주,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귀국하였다. 이들이 안정될 무렵 미국, 남미, 유럽으로의 이민이 시작되었고 월남전이 끝나면서 많은 한인들이 동남아시아, 호주, 중동 등지로 분산되어 갔다. 한인들의 유, 이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약 7백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150개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수로 말하면 세계 4위에 해당하고 본국 인구와의 비례로 말하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한민족은 근세사에서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 특유의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나라를 상실하였다가 국가를 건설하였고, 그 국가는 분단되었으며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였다. 한국은 산업화를 서둘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선진국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산업국이 되면서 의존경제체제를 갖

게 되었고 지정학적 입장에서 경제 대국 일본, 인구 대국 중국 사이에서 이들과 경쟁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외동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재외 한인의 역사와 분포 상황을 보고 재외 동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여 보며 재외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이 어떤 전략으로 세계에서 생존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2. 재외 동포 이주사

재외 동포들이 한반도를 떠난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재외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사는 1860년부터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60년부터 140년이 경과한 재외 동포의 역사를 크게 5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

제1기는 1860년에서 1919년까지 주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만주 지방으로 이주한 시기이다. 당시까지 한국에는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월경죄가 적용되어 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흉년으로 생활고가 극심하여지자 함경북도 산간지역 거주자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69년에는 3년간의 심한 흉년이 들어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봉금령이 있어 한인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월경하여 살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 흉년이 들면서 월경자가 속출하였고 중국도 마침내 봉금령을 해제하여 많은 한인들이 북방으로 이주하여 갔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의 이민은 농민이 주가 되었다. 한국에서 농민들이 대거 북방으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간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민족은 중국인이나 만주족 또는 러시아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려 둔 습지대를 개간하여 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의 원주민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었다.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한 한민족들은 농민들이 아니었다. 농민보다 더 중요하였던 사람들은 만주와 연해주에게 독립운동을 전개하

였던 우국지사들이었다. 이들 한인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실시하였으니 하나는 학교를 건립하여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양하였고, 하나는 직접 총을 들고 항일 투쟁을 전개한 것이었다. 이들 우국지사들의 물결은 특히 1905년 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을 때, 1910년 한국이 합방을 당하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 물결이 1919년 3.1운동을 감행한 후 북상하였다. 우국지사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저 유명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제2기:

제2기의 이민은 일본으로 향하였다. 한국에서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일본의 도시에 진입하여 단순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장기 체류할 의사가 없이 단지 2,3년 동안 돈벌이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일본에서 노동력이 비싸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처자를 한국에 놓고 남자들이 단신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장기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노동자들이 처지를 일본으로 초청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야기하고 만주국을 건립하더니 이어 중국과 중일전쟁을 감행하는 등 전시체제로 돌입하며 한국인에 대하여 군수공장과 광산 등에 노동자를 강제로 징발하였고 후에는 군속으로 동원하고 여자는 정신대로 동원하였으며 다시 군인으로까지 징발하여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에는 200만의 한인이 있었다. 이들은 서둘러 귀국하였으나 선후관계로 귀환이 끝났을 때 60만의 한인이 일본에 남게되었다. 이들이 말하자면 오늘의 재일 한인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3기:

이민의 제3기는 1965년 미국의 새 이민법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해방 후 1965년까지 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민을 중간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이민 수는 적었으나 다음 올 제3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중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3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었고, 하나는 미국으로의 입양아들이었으며, 또 하나는 유학생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연간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특히 국제 결혼한 여자들은 후일 재미 한인들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인 이민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바로 1965년인데 그 이유는 이 해 미국이 새 이민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2만 명의 쿼터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을 따라 한국 이민을 수용하고, 남미로의 이주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서독으로의 계약 노동자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독일로의 이주는 남자는 광산 근로자로 여자는 간호원으로 한국을 떠났다. 제3기 이민의 특성은 서구 문명권으로 이주한 이들이 새로운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민 제3기는 엘리트 이민, 또는 가족 이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예로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것이다. 원래 이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력이지만 엘리트가 아니다. 따라서 한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최저에서 출발하여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사회 상승을 도모하였다. 특히 1.5세와 2세들의 사회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남미의 여러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도 유사하다. 남미하면 연상되는 것이 브라질의 농업이민인데 남미의 농업은 한국의 농업과 다르게 대규모 기계화 농업이었고 특히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농민이 아니었기에 남미로의 농업이민은 실패하였고 남미 이주자들은 모두 도시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처음 빈민가에 입주하여 가져간 옷을 파는 보따리장사에서 시작하여 소매상,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성장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의류 도매상을 장악하고 유대인과 아랍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류업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독일로 간 남자들은 광산 근로자들이었고 여자들은 간호원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간호원이 독일 병원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장기 체류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하여 유럽의 교민이 되었다. 이들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여 모두 거주국의 모범적인 소수민족이 되었다.

제4기:

이민 제4기는 1975년 월남전이 끝나면서

시작되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그곳에 약 30만 명의 한인 건설 기술자와 노무자가 있었다. 월남전이 끝났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확대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중동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이들 제4기의 이민들의 거주국은 서구 문명권이 아닌 동남아시아였기에 문화의 충격이 심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이주하면서 곧이어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여러 나라로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이주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 관광안내, 기념품 상, 호텔 등 사업으로 진출하였으므로 이들을 사업이민이라 한다.

제5기:

제5기는 한국의 IMF 사태 이후에 외국으로 분산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때는 방향도 다양하고 이민의 형태도 다양하며 적응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도 외국으로의 합법, 또는 불법 이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성은 중국 동포들이 한인들을 따라 세계 도처로 분산되어 가는 제2의 이민 물결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3. 재외동포 분포상황

한 국 재외동포재단의 집계에 의하면 2001년 현재 565만 명의 재외동포가 159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분포상황을 2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나라의 순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인원	국가	인원
미국	2,123,167	영국	15,000
중국	1,887,558	프랑스	10,485
일본	640,234	태국	9,870
소련	521,694	베트남	6,266
캐나다	140,896	파라과이	6,190
브라질	48,097	과테말라	5,456
호주	47,227	싱가포르	4,906
독일	30,492	이탈리아	4,888
아르헨티나	25,070	스페인	3,317
필리핀	24,618	대만	2,945
멕시코	19,500	말레이시아	2,937
인도네시아	18,879	기타	35,765
뉴질랜드	18,338		
		총	5,653,809

재외동포재단의 규정에 의하면 한인의 피

가 4분의 1이 섞인 사람까지를 한인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범위에 속하면서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 30여만 명, 국제 결혼한 미국의 한인여성 18여만 명, 외국에 입양한 한인 입양아 15만여 명,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이주하여 가는 이른바 뉴커머 등이다.

일본의 귀화는 미국에서의 귀화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본에서의 귀화는 일본인이 되는 것 이외에 일본에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 재일 한인들이 극히 꺼리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화를 하는 것은 사업 때문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귀화를 하여야 일본 은행에서 자본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큰 사업하는 한인이 귀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일본에서 귀화한 자는 한국을 배신한 자라 하여 한인사회에서 제외하여 버린다. 그러나 한국에 보다 많은 기부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귀화하였거나 귀화를 하지 않았거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건은 10만 명이 넘는 뉴커머라고 하는 새로이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도 같다. 일본의 민단에서 새로 이주한 사람을 받아드리는 곳도 있고 이들을 제외시켜 버리는 곳도 있다. 이 새 이주자는 재일 교포보다 한국말이 유창하고 한국 정신이 분명하다. 다만 이들이 유학을 갔다가 정착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출현하거나 여자들의 경우 술집에서 일하다가 사회에 진출하여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출발이 불미스럽기 때문에 재일 동포들이 이 새 이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한 국민이고 그들이 현재 동경 신주쿠에 코리아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세력이 이미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 한인회의 경우도 국제 결혼한 여자들의 영입을 꺼리고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결혼한 사람 중에는 이혼을 당하고도 한국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모두 잘 살며 그들의 남편 중에는 관청에서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은 포용하여야 하며 특히 이들의 후손들을 한국인 후손으로 포용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입양아들이다. 한인들은 입양아를 국제적으로 수척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연간 수 천명을 입양시키고 있다. 이들 입양아는 순수 한국

인이기에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이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 입양아들은 예외 없이 좋은 집안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면 모두 대학까지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의 귀한 자산인 것이다. 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들을 입양한 서양 부모들이다. 이들 부모는 중상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입양아에게 쏟는 정성은 한국인이 크게 칭찬하고 감사하여야 한다. 국제화시대란 이러한 한국과 인연이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4. 재외 동포의 의미

한 국의 재외 동포들은 거주국의 모법적인 소수민족으로 이를테면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법적인 소수민족이며 또한 미국 120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모법적인 중간층 소수민족이다.

재외 동포는 한반도 이외의 다른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사는 한민족이다. 따라서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재외 동포는 분명히 다른 국가의 국민이다. 그러나 근년의 역사 전개는 국가의 국경개념이 약화되는 반면 국제화라는 명목 아래 인류 생존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민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외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유효하다.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로서는 국민의 구성에서 예외적인 나라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여러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기 민족을 여러 나라에 갖고 있는 "다 국가 민족"이다. 한민족이 "다 국가 민족"이라 한 것은 한민족에게 국민의 개념보다 민족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이 한민족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한민족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다 국가 민족이라 한 것이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거주하나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나 모두 소중하다 하였으나 거주지를 상관하지 않을 경우 실은 재외동포가 한민족에게 더 귀중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자체가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한인 몇 배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고 주권을 상실하였을 때 연해주와 만주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우리는 죽은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무력 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하여 독립국가의 체면을 유지하여 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연해주와 연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여 주었던 것이다.

재외 동포는 우리 민족의 민간 외교관이다.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가장 잘 살고 존경받는 민족이 한인인 조선족이다. 구 소련에는 127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한인들이 가장 잘 사는 모법적인 소수민족이다. 미국에는 120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들을 모법적 중간자 소수민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한인들은 모법적인 소수민족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국위를 높이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재외동포는 한국에 경제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던 1960년대 재일 동포들이 엄청난 경제적 공헌을 하였다. 일본에는 한국의 도벌, 군벌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제주도의 경우 리 단위의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의 중요사업은 고향을 돕는 일이다. 향우회마다 자기 고향 마을에 다리를 놓는 일, 거리를 만드는 일, 학교 피아노를 선사하는 일, 제주도의 경우 굴감 묘목을 보내는 운동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한국이 공업화를 서둘러 시기 한국의 산업 기술 방면의 미국 교포들이 많이 참여하여 한국의 공업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자에 특별 기구를 두고 재미 과학자를 초빙하여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KIST와 포항공대가 그 대표적 예의 하나이다.

재외 동포들이 공헌한 것의 하나이며 최고의 공헌은 이들의 노력으로 미국 SAT II에 한국어를 채용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이후 가장 큰 업적으로서 한국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쾌거이며 미국에 이어 호주와 일본이 고등학교 순응고사제에 한국어를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은 IT 산업에서 미국, 인도와 더불어 세계 최상 3위에서 선후를 다투고 있다. 이것에는 역시 재미 동포의 공헌이 크다. 한국에 기술을 전하여주고 한국에 벤처 기업을 보여주며 한국에 기술자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재외 동포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였고 한국의 상품을 외부에 선전하기 위하여 외관원의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문화를 세계 민방에 선전한 선전원의 역할까지 감당한 것이다.

5. 한민족 공동체의 방안

한 국은 1억 2천의 인구나 고도의 자본 및 기술을 가진 일본과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이들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해외 동포들이다. 우리 해외 동포야말로 한인들의 자산이고 희망인 것이다. 이들의 힘을 한국에 향하게 할 때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과 겨룰 수 있다.

한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하여 이룩한 것을 한민족 공동체라 하자. 한민족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3가지의 차원이 있다. 하나는 한민족 정치 공생체이고 하나는 한민족 경제 공생체이며 또 하나는 한민족 문화 공동체이다.

첫째, 분단된 남북이 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계에 통합되는 이른바 통일을 한민족 정치 공생체라 하였다. 한국은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체제의 희생이 되어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두 정부는 무력으로 통일을 꾀하여 보았다. 그러나 깨달은 교훈은 무력으로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이 협력하여 참다운 의미의 민족국가, 국민 국가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에 제3자의 입장에서 재외 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과 북한은 그 나름대로 나라를 운영하여 왔다.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국민 국가는 무엇보다 한국인이 잘사는 나라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바탕이 되는 사회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가 발달한 나라여야 한다.

둘째, 한민족 경제 공생체란 한민족의 경제활동을 더불어 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에 좁은 의미의 동북아 경제 공생체와 넓은 의미의 한민족 경제 공생체가 있을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동북아 한민족 경제 공생체는 한반도와 중국 연변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해주에는 남한의 경지 만한 넓은 농토가 있고 이것을 개간할 능력이 러시아에는 없어 한국에 의존하려 한다. 이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이곳

을 개간하여 우선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경제 공생체의 의도이다.

셋째, 세계에 분산된 한인상공인들이 협력하여 공생체를 이루는 것을 넓은 의미의 한민족 경제 공생체라 하였다. 세계 한민족 경제인 연합회가 이미 조직되어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품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이를 진행 중에 있다.

전 세계에 분산된 한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한민족 문화 공동체라 하였다. 이것은 상업과 경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전부를 포함하여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위시하여 세시풍속, 통과의례, 놀이, 사회조직, 종교, 물질문화 등 문화의 전반을 포함하며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의 한인들이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민족의식을 갖게 하고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흔히 외국에 거주하면 빨리 거주국 문화에 적응하고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빨리 진입하는 것을 갈망한다. 그러나 민족의식이란 자기가 버리려하여도 남이 인정하여 주는 것이기에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 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건전한 자기 민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한 것이다.

특히 세계의 추세는 다민족 국가 다 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유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조국인 한국과 거주국인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가 환영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6. 한민족 공동체와 2세 교육

한 민족 공동체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조국에서 떨어져 가는 1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국을 모르는 2세 3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이다. 이민 1세는 무조건 조국을 사랑하며 신기하게도 한인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한국을 더 사랑한다.

그러나 2세는 조국이 아무리 좋아도 조국

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특성이 다. 이것은 자기의 불만이 이민 온 것에서 유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불만을 부모인 1세에게 전파시키는 것이다. 3세가 되면 2세에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1세와 유사하게 할아버지의 조국, 자기의 원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시계축의 원리"라 한다. 물론 3세의 조국애는 1세와 달리 감상적이고 추상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2세에 있다. 2세의 경우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이 부정적일 때 결코 거주국의 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며 심할 경우 정신적으로 분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2세들의 개인들 위하여도 건전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민족 문화 공동체는 모든 문화 요소를 집약하여 거대한 문화 내용을 담은 민족 망을 구성하되 그것이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여야 한다. 문화를 교육용으로 치중할 때 문화 내용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동양의 문화가 그간 서양의 문화에 압도되어 위축되어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식민지 사관에 입각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긍정적인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다시 정돈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용도 흥미로워야 하지만 학습하는 방법 또한 흥미로워야 한다. 미국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흥미로워야 한다는 말이다.

7. 결론

세 계는 바야흐로 국민보다 민족을 생존경쟁의 단위로 생각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이 방대한 인구나 동남아시아 화교의 재력과 미국 거주 중국인의 두뇌를 합하여 세계에 도약하지는 대 중화주의 회의가 있었다. 특히 구 소련이 와해된 후 민족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동양 3국에 한정하여 보아도 한국이 가장 약하다. 중국은 아무리 더럽다고 욕하여도 모든 중국인은 대 중화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끝없는 전쟁을 통하여 확고하게 된 대화(大和)정신을 갖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식민사관으로 한국문화를 보는 눈을 가졌으며 해

방 후에는 서양문화에 압도되어 한국문화를 더욱 비하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에서 해방된 것은 한강의 기적,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세계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자기 것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되었고 자기의 전통문화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하여 재외동포들은 자 민족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느리다. 그것은 이민 연구가들이 말하는 동결현상 때문이다. 동결현상이란 이민 올 때의 사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머리가 얼었다는 표현이다. 1930년대의 한국을 떠난 재일 동포는 한국의 1930년대의 머리와 풍속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는 언어까지 보관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로 이주한 재미 동포들은 1970년대의 한국의 머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주국인 미국이 변화하였고 조국인 한국이 변화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의식은 이주할 당시의 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민의 특성이 다. 재미 동포의 경우 이러한 동결현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근년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산다 하지만 이민은 역시 이민이다. 따라서 재미 동포들은 미국을 열심히 배우는 것과 같이 한국의 변화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재미 동포들은 미국의 장점을 빨리 습득하여 자녀 교육하는데 공헌하여야 하는 동시에 한국에 미국적인 것의 장점을 가르치는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 한국은 외형적인 발전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내면적인 발전도 선진국에 도달하였느냐 하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다. 한국의 내적 발전에 협력하여 줄 사람들이 재외동포들이다. 재외 동포들은 거주국의 장점을 빨리 익혀 그것을 한국에 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한국은 재외 동포들의 경험과 충고를 받아들여 경제에서 압축성장을 한 것과 같이 의식에서도 압축성장을 하여 명실 공히 선진국의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형**



나는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민협회 추천으로 재외 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워크샵은 그 동안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600만 해외 동포사회와 본국간 발전적 상호관계를 진작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재외 동포재단이 주관한 행사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샵에는 나를 포함해서 16개국 3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부터 대학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고 조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지닌, 말 그대로 조국과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활약을 기대되는 차세대 지도자들이었다.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은 정치, 경제 분야별 세미나와 함께 조국의 산업, 문화, 스포츠, 안보분야에 대한 참가와 견학으로 짜여 있었다.

정치, 경제분야로 나누어져 열린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들답게 한국 교포 사회와 각국 주류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포사회 자체의 단결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와 함께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D램 반도체 1위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세계 4강의 신화로 모든 국민과 해외 교포들을 들뜨게 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서 때늦은 응원가 열창으로 직접 월드컵 현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한을 풀었다.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서 내 동생뻘 되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서 불안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일주일간의 짧다면 짧은 일정을 함께 하며 참가자들은 언어와 각국의 풍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쉽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해진 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쉬움과 함께 모두 훌륭한 생각과 재능을 지닌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보스톤 한인사회에서도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와 같은 재외동포 워크샵에 계속 참여해서 많은 점을 배우며,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재외교포와 함께 조국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들었다. 또한 나 자신도 더욱더 노력하고 한인사회에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시현

As sponsored by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attend the 5th Overseas Korean Future Leadership Workshop from September 1-7th held in Seoul, Korea. The workshop was organized by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OKF) (<http://www.hanminjok.net>) which was established in 1997, in efforts to encourage and strengthen the ties of over 6 million immigrants and its descend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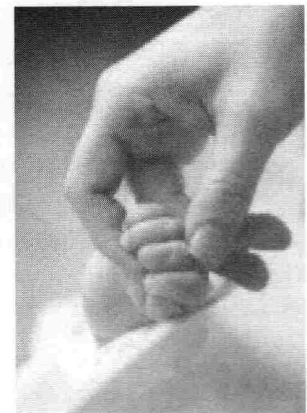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included 32 professionals from 16 different countries whose occupations ranged from professors, lawyers to graduate students, all of whom are foreseen as the future leaders in their respective society. Our week long program agenda was divided into parts where we were able to learn about our motherland's industries, culture, sports media and land security. Accordingly, much of the workshop's discussions composed of underlying issues of social infrastructure of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the strategies to unite Koreans living abroad to progress the immigrants' society.

In hopes of educating participants of Korea on the country's economic advancement and culture, OKF also planned trips to several landmarks. Our first visit took us to Samsung Electronics, one of the world's largest technology company and a global leader in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as well as Hwaseong fortress one landscape,

which was chosen as one of the UNESCO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addition, we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tour the very 2002 Korea- Japan World Cup Stadium where, from overseas, we watched our Korean soccer players reach the fourth ranking. Although we did not get to act as part of the actual crowd during the games, we were able to express some of our excitement and Korean pride by reenacting the cheers we would have performed had we been a part of the crowd. While touring Korea's lands security, I could not help but feel disappointed about our divided land and my heart reached out to the young soldiers nervously posed in war ready positions at the divided line.

Even though the attendants were all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and spoke different languages, everyone bonded easily within the one week time period. I almost felt as though every person at the workshop experienced a common bond with one and another because of the Korean blood that ran through all of us, regardless of which country each person came from.

On the route back to Boston, I realized that my time spent with other colleagues in the workshop helped to reevaluate my role as a Korean American. My new goal is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more future leaders who can have the same opportunities that I have had to network with other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mmunities overseas. **KACL**



My summer has always been very ordinary. I would spend time with my friends, read, help my parents business, or simply relax. I had never worked in an organized fashion during my summer before; the political internship at the State House was going to be a new experience for me. Being a computer science major from Georgia Tech, I was a very unlikely candidate for a summer political intern. At the time Ms. Donlan, director of administration in Office of the Governor, interviewed me, I did not even know who the current governor of the Massachusetts was! Despite my large shortcomings, I was offered the position to be an intern at the State House.

During the orientation, I realized that most of the interns were either political science majors or law students. I started to wonder if I had made a wrong choice of applying for something I was not fit to do. I did not really think I could serve or learn effectively from tradition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Chief Secretary or Legislative Office. Fortunately, I learned I was to serve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of the Governors Office. ITD for the Governors Office was a small part of ITD of Commonwealth that supports less than 100 computers. My typical tasks included simple PC user-support as well as setting up new users and their computers. I also found myself helping people in simple office applications like Microsoft Outlook.

One of the great benefits of being a summer intern was being able to attend the weekly speaker series. Every Tuesday, someone from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came to the State House to have a lunch with the interns. Most of the speakers took informal approach and I genuinely enjoyed their presence. My personal favorite speaker was Richard Swensen of Commonwealth Security. He talked about the effects of tragedies of 9/11. I could only imagine how greatly the event affected agencies like the commonwealth security. I also never knew the

complications and thoughts that go into the Commonwealth Security. Different measures the agency takes at different levels to protect the Commonwealth simply amazed me.

The Big Dig tour was another event that was very exciting. Living in Greater Boston area for many years, the Big Dig was nothing more than painful and annoying construction work that heavily clogged I-93 that goes through downtown Boston. I also knew that the Big Dig was very costly. What I did not know was how desperate citizens of Boston were for a major overhaul of road works in Boston. Simply put, while central artery was designed to withstand up to 75,000 vehicles a day, city of Boston had about 200,000 vehicles driving through it daily. Also, as a student from an engineering school, I marveled at the sheer amount of engineering involved in the project. It gave me a sense of fulfillment that one day my engineering friends and I will serve the community in a similar way.

I would be lying if I had said the experience I had at the State House was perfect and I did not have any gripes. What I can say, however, is that experience was new, and broadened my view of different agencies in the Commonwealth of the Massachusetts. The summer political internship will not help one to save up some spending money. The internship may even be boring on many days. It will, however, give you good glimpses of how Commonwealth works internally. KACL

나는 여름을 항상 평범하게 보내곤 하는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독서를 하거나, 부모사업을 돕거나 아니면 그냥 쉬곤 하였다. 이전에는 전혀 어떤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일을 한 경험이 없다. 정치인턴으로 주 청사에서 일한 것은 나에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였다. 조지아 기술대학에서 컴퓨터전공을 하고 있던 나에게 여름동안의 정치인턴은 별로 맞지 않는 일이었다. 주지사 사무실의 관리부장이었

던 돈란 여사와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주 청사에서 정치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 나는 대부분의 인턴들이 정치사회학을 전공하거나 법률학도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할 것을 괜히 응모하였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주 내무부나 입법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뭘 배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나는 주지사 사무소내의 정보기술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정보기술과는 주 정보기술과의 일부로서 약 100대의 컴퓨터를 돌보는 과였다. 내가 한 일은 PC 사용자를 도와주고 새로운 사용자를 위하여 그들의 컴퓨터 설치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루크와 같은 사무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도와주곤 하였다.

인턴 기간동안 가장 큰 보탬은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매 화요일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 청사로 와서 인턴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곤 하였다. 대부분의 연사들은 친하게 대하였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중에 나는 주 보안과의 리처드 스웬슨을 가장 좋아하였다. 그는 작년 9월 11일의 비극적인 테러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말하곤 하였는데 그 사건이 주 보안과와 같은 주 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그저 짐작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또한 주 보안과의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운영과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주의 안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수준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었다.

보스톤 빅딕공사(Big Dig Project) 또한 참 재미있는 주제가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스톤에 살았던 나로서는 그 공사가 그저 보스톤 중심가를 통하는 93번 국도를 가끔 막히게 하는 귀찮은 건설공사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알고보니 소요경비도 굉장히 많았고 또 보스톤 시민들은 얼마나 이 공사가 빨리 끝마치기를 원하는 가도 알게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7만 5천대의 차량을 소화하도록 건설된 순환도로 위로 현재는 2십 만대 이상의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대에 재학중인 나는 이 공사에 많은 공학이 응용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31 페이지로 계속)

Two days after my college graduation, I left for Washington, DC to serve as a summer intern for Senator John Kerry. I knew nothing about politics; I had never taken any courses in politics; nor had I joined any student political organizations. What I did know was that I was very much interested in foreign affairs and women's issues. I wasn't sure how much I could learn in just a couple of months; however, my summer working in Senator Kerry's office has proven to be one of the most exciting experiences I've ever had.

Of course, as an intern (and similarly to any internship) I had to perform many administrative tasks - photocopying, filing, answering phones, delivering mail, etc. In short, the internship will only be as interesting as you make it. For example, I wrote letters to constituents; I did extensive research on issues involving the Middle East. But the most amazing opportunity for me was the chance to sit in on Senate court hearings. I worked for Senator Kerry's foreign relations legislative correspondent, and consequently I had to attend several of these hearings. I listened to various senators and witnesses discussing problems pertaining to the al Qaeda terrorist organization; the different approaches to eliminating the abusive treatment of women in Afghanistan; the United States' struggle to help the people of Africa.

One of the most fascinating aspects of Washington, DC is that it is the city where laws are made and passed. Not only can you learn how laws are made, but you can actually see the Senate voting on these proposed laws and amendments as well. The experience of sitting in the Senate chamber and watching these men and women change the rules by which we live is truly an awesome opportunity.

Washington, DC is a very hot and muggy city; and it is not exactly the safest city, but it does have a fantastic nightlife. Meeting other interns and going out with them after work was one of the most enjoyable and relaxing parts of the internship. I cannot

even begin to explain how important it is to create a social life for yourself in DC. You never know when these friends can help you, or when you can help them.

What struck me time and time again while I was interning was the absence of minorities. Even among the interns, I saw only a handful of Asians. Washington, DC's political world is a white, male empire. This kind of atmosphere and biased power dynamic need to change. The Senate needs more women; more blacks; more Asians. The dearth of an Asian presence among the interns made me especially proud to be able to represen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ut it also made me aware of how much further we need to go to become fully well represented.

I want to thank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nd Senator John Kerry's office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nd my summer in Washington, DC as a legislative intern. Not only did I get to experience the realm of politics, but more importantly I realized the value and need for strong Korean and Korean-American voices in this country as well. **KACL**

졸업식이 끝난 지 이틀만에 저는 존 케리 상원의원의 인턴으로 일하기 위하여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정치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또 정치학을 안 배웠고 학생정치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외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한 두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케리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이번 여름은 제가 경험하였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인턴으로서 여러 사무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 파일, 전화 받기 및 우편배달 등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턴일은 잘 할려고 하면 아주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주민들에게 편지도 썼고, 중동지역에 관하여 연구도 꽤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원청문회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케리 상원의원의 대외관계 입법담당관을

위하여 일을 한 결과 이런 청문회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상원의원들과 증인들이 알카에다 테러집단에 대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것도 들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이 받는 불공평한 대접을 어떤 방법으로 근절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들었고, 미국의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원조에 대하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DC에서 바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통과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였습니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도 보았지만 또한 이 법이나 개정법률 등이 상원에서 투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원 방청석에 앉아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법률이 직접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경이의 경험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여름은 덥고 후덥지근하였고 또 그렇게 안전한 도시만은 아니었지만 저녁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일이 끝난 후 다른 인턴들과 함께 나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재미있고 좋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들을 도울 기회가 언제 오리라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턴생활 동안 계속 느꼈던 것은 소수민족 출신의 정치인들이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인턴들 중에도 아시아계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세계는 백인남자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나 남성들만의 권력구도가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상원들도 더 많이 생겨야하겠고, 흑인이나 아시아들도 더 많이 진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므로서 한인미국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얼마나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진출하여야만 우리 한인미국인사회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를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을 워싱턴에서 존케리 상원의원의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와 케리 상원의원 사무실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이 미국사회에서 한인이나 한인미국인들의 소리의 중요성과 더 큰 소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인협**

(한국어 번역: 이의인)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03 Summer Internship Program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invite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o apply to its 2003 Summer Internship Program. Interns will be placed in the offices of U. S. Senators, Congressmen, or the State Government, or other places, and they will receive a stipend of \$1000. At the end of their internship, they will be expected to write a one-to-two page essay describing their experience,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ACL.

KACL is a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KACL hopes to encourage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young Korean Americans, foster their interest in public policy-related careers, and develop their leadership skills.

Eligibility Requirements:

- Applicant must be a current college/graduate school student in good standing.
-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merican origin.
- Applicant must be a New England resident or attend a college in New England.
- Applicant must have a minimum grade point average of 3.0 (on a 4.0 scale), along with evidence of leadership abilities and excellent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Please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SangChul Shin,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1. A brief essay (less than 500 words, eg why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ship program, how you can benefit from it, and the areas of interest).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package to the politician's office.
2. Resume Include educational information, work experience, volunteer experience, activities & other interests.
3. Current school transcript.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Addressed "To Whom It May Concern" because it may be forwarded to the politician's office).

Applications must be postmarked by January 31, 2003.

Faxed or e-mailed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in Ma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SangChul Shin at (781) 862-0512(home), (781) 442-0531(work), (781) 405-8021(cell) or e-mail to Sang.Shin@Sun.com.

For information on KACL, please visit <http://www.kaclne.org>.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03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U.S. Citizen: _____ Legal permanent resident: _____

Current Telephone Number: _____

Best time to call: _____

Current e-mail address: _____

Current Mailing Address: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Permanent Telephone Number: _____

College: _____

Major: _____ GPA: _____

Expected Degree and Year of Graduation:

Placement Preference: Boston _____ Washington _____

Are you willing to accept an internship position without a stipend? Yes _____ No _____

(Note: This will not affect the selection of winners)

시민권 신청

I. 시민권자가 되려면, 일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1)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5년 동안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허용)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자 (6개월 이상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았었다면, "지속거주 원칙"에 벗어날 수 있음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자가 된 사람으로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
- 3) 18세 미만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부모로 가진 사람 (신청양식이 N-600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위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신청양식을 이민국 혹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다음의 방식으로 매사추세츠주 거주인의 경우, Vermont Service Center에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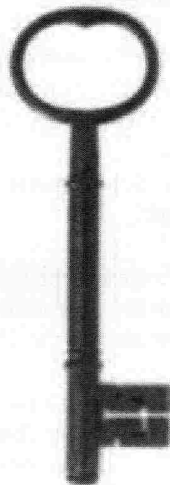
- 1) N-400
- 2) 신청료 및 지문채취료를 합친 \$310 (개인 수표 무방)
- 3) 오른쪽 귀가 보이는 영주권용 사진 두 (2)장
- 4) 영주권 사본 앞과 뒤
- 5)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판결서 혹은 사망 진단서
- 6) (범법자) 법원에서 인정한 법원 기록서

III.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1) 접수 영수증이 신청인에게 발송되어 집니다.
- 2)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문채취를 하라는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 3) 약 6개월 내지 1년 안에 정해진 이민국에 출두하여, 구두로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정치와 역사에 대해 10개-20개의 구두 시험과 간단한 영어 받아쓰기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15년 (신청당시 55세) 혹은 20년 (신청당시 50세) 이상 영주권자로 있었으면, 한

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인은 반드시 본인이 대동하여야 합니다.

- 4) 보스톤 이민국의 경우, 시민권 시험 인터뷰에 통과되면 당일 "선서일"을 한달 내로 지정하여 줍니다.



선거인 등록

18세가 넘는 미국시민은 선거권이 있으나,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 등록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며, 선거 때마다 관할 투표소에 출두하시면 그곳에 본인의 이름이 항상 명부에 있습니다. 선거인 등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선거등록 신청서는 가까운 시청 혹은 학교, 공공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이 끝나면 해당 시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2) 차량국에 차량 등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3) 정부보조 신청서를 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 4) 웹사이트 www.beavoter.org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직접 거주 시청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보스톤 근교 시청 주소와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Boston	City Hall Plaza (617) 635-4600
Brookline	333 Washington St. (617) 730-2010
Cambridge	795 Mass Ave. (617) 349-4260
Lexington	1625 Mass Ave. (781) 861-0500
Lowell	375 Merrimack St. (978) 970-4161
Lynn	3 City Hall Square (781) 598-4000
Malden	200 Pleasant St. (781) 397-7116
Newton	1000 Comm. Ave. (617) 552-7030
Quincy	1305 Hancock St. (617) 376-1130
Somerville	93 Highland Ave. (617) 625-6600
Waltham	610 Main St. (781) 893-4040

〈편집자주〉 2002년 9월 25일에 열린 제107차 미 하원회의에서는 2003년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으로 기념하자는 결의안 297호를 41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데 이어 이 결과는 미주 한인들에게는 물론 한국에 있는 한국민들에게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협회에서는 결의안 본문을 전재합니다.

H. CON. RES. 297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10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cember 20, 2001

Mr. HOEKSTRA (for himself and Mr. TOM DAVIS of Virginia) submitted the following concurrent resolution;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CONCURRENT RESOLUTION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10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as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played a central role in nurturing the political and religious evolution of modern Korea;

Whereas in December 1902, 56 men, 21 women and 25 children left Korea and traveled across the Pacific Ocean on the S.S. Gaelic and landed in Honolulu, Hawaii on January 13, 1903;

Whereas the early Korean-American community was united around the common goal of obtaining independence from their colonized mother country;

Whereas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ve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Korean Conflict;

Whereas on June 25, 1950, Communist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with approximately 135,000 troops, thereby initiating the involvement of approximately 5,720,000 personnel, both military and civilian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worked to stem the spread of communism in Korea;

Whereas casualties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cluded 54,260 dead, of whom 33,665 were battle deaths, 92,134 wounded, and 8,176 listed as missing in action or prisoners of war;

Whereas in the early 1950s, thousands of Koreans, fleeing from war, poverty, and desolation, came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opportunities;

Whereas Korean-Americans, like waves of immigrants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m, have taken root and thriv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trong family ties, community support, and hard work;

Whereas Korean immigration has invigorated businesses, churches, and academic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according to the 2000 United States Census, Korean-Americans own and operate 135,571 busi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have gross sales of \$46,000,000,000 annually, and employ 333,649 individuals;

Whereas the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beating heart operation for coronary artery disease, the development of several varieties of the nectarine, and achievements in engineering, architecture, medicine, acting, singing, sculpture, and writing;

Whereas Korean-Americans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hip;

Whereas the partne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elps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provides economic benefits to the people of both nations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Whereas beginning in 2003, more than 100 communit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concurring), That the Congress--

(1) recognizes th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0 years; and

(2) requests that the President issue a proclamation calling 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to observe the anniversar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하원 결의안 297항

2001년 12월 20일자로 한인 미국 이민 백주년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며 호크스트라(버지니아주의 톰 데이비스와 함께)는 다음의 동시 결의안을 정부개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동시 결의안

한인 미국 이민 백주년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근대 한국의 정치 및 종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02년 12월에 56명의 남자와 21명의 여자 및 25명의 어린이가 S.S. 갤릭호를 타고 한국

을 떠나 태평양을 거쳐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1903년 1월 13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초기의 한인 미국인 지역사회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모국의 독립을 위한 공동목표 아래 한데 뭉쳤습니다.

한인 미국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 미국 군인으로 참전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국가인 북한이 13만 5천명의 병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을 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인 및 민간인 572만 명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인의 사망자는 5만 4천 260명이었는데 이중 전사자는 3만 3천 665명이었고 9만 2천 13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천 176명이 실종되었거나 혹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1950년 초에 수 천명의 한국인이 전쟁과 가난, 그리고 황폐를 피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민 온 한인 미국인들과 같이 혈연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거나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리를 잡고 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인 미국 이민들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번창시키며, 교회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교육열도 높였습니다.

200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인 미국 이민들은 전국적으로 13만 5천 571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연간 460억불의 매출을 올리며 33만 3천 649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들은 심장환자를 위한 최초의 인공심장을 발명하였으며 수종의 베타린 음료를 개발하였고, 또한 공학, 토목학, 의학, 연극, 음악, 조각, 및 소설 부문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호적인 대미관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조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국민과 세계에 커다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전국에 걸쳐 100개 이상의 지역사회가 한인 미국이민 백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원의원들은 (상원도 함께)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1. 연방 하원은 지난 백년간 한인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 기여한 공헌과 이룩한 업적을 인정합니다.

2.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과 관계기관이 한인 미국 이민백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 및 기념식 등을 통하여 이를 기리도록 한인 미국이민 백주년 기념의 해로 공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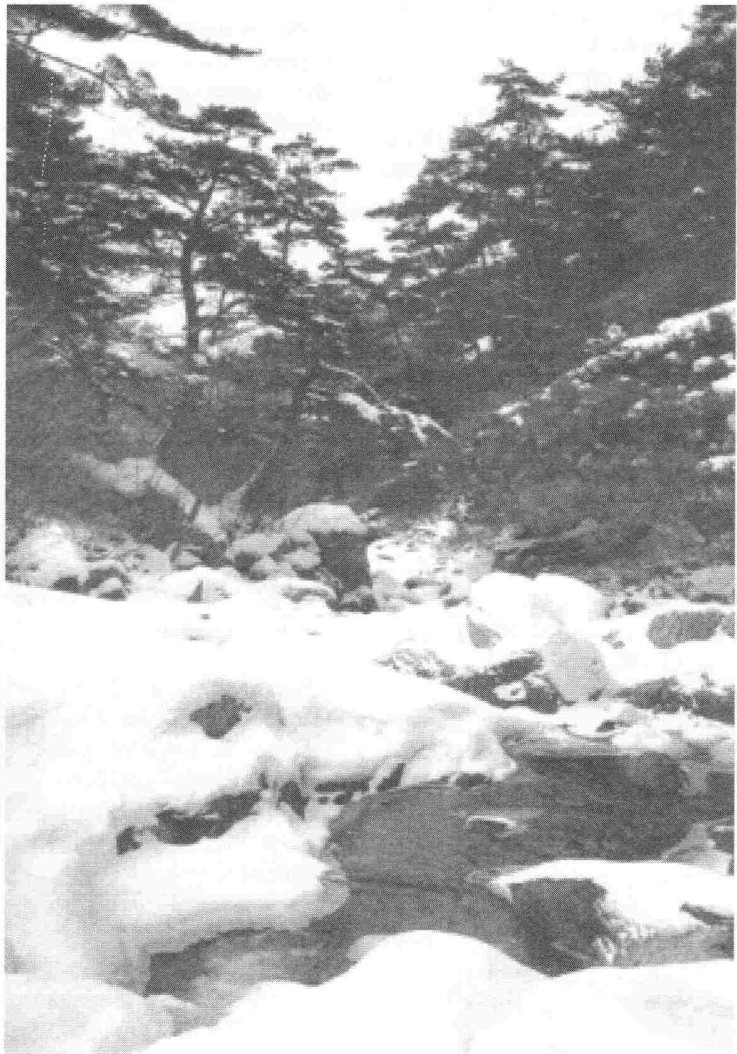
(한국어 번역: 이의인)

(25 페이지에서 계속)

고 감탄하였다. 나도 언젠가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런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주 청사에서 얻은 경험들이 아무런 하자 없이 아주 완전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면 거짓이 되겠지만 내가 얻은 경험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으며 매사추세츠 주 내의 여러 주 정부기관들에 대한 나의 관점을 넓혀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지루한 날도 있었지만 주 정부기관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건설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시원**

(한국어 번역: 이의인)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a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has embarked on a groundbreaking new project, the Asian Americans in New England Research Initiative (AANERI). The AANERI project is a New England-wide effort to create an essential collection of research about the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 the area.

By establishing this essential collection of research, AANERI will paint a truer picture of Asian Americans roles, conditions, and development in New England. For example, initial research for AANERI has placed a Chinese American community in Maine since the 1880s and identified Asian Americans from Massachusetts in the Union Army during the civil war. We are also aware of the often-unacknowledged Asian American influences in such diverse areas of New England life such as agriculture, music, urban development, and industry.

Need for the Project

The AANERI project will help Asian Americans have a role in regional policy and planning discussions. A fuller picture of Asian American community challenges commonly held preconceptions about Asian Americans, who are often pictured as foreigners, newcomers, and marginal citizens. This fuller picture will define the history that Asian Americans have had in New England, the contributions that they have made and are making, and the issues that they face today.

Encompassing the research projects across the social science spectrum, AANERI will also lessen a major obstacle that many community organizations, agencies, and policy makers face. Today many foundations and public and private agencies are asking for data to define problems, which is a major basis to award grants. They also need data in order to make informed decisions in allocating resources. The lack of reliable data and research, however, describing the needs

that Asian Americans face makes such descriptions difficult. This data vacuum frustrate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who must advocate for their programs, and public agencies that want their programs utilized.

Building the Project Infrastructure

Project objectives include: Creating a network of researchers who are conducting research of New England Asian American communities; Publishing research guides and other tools; Developing an inventory of existing research; and Conducting basic research Formulating an agenda for research.

The Institute has already made a number of presentations to conduct outreach to other researchers. The first, at the 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 2002 national conference in Salt Lake City, featured some of examples of the type of research scholars were presently conducting as well as a description of the AANERI. Scholars from various schools, including Brown University in Providence, R. I. were very enthusiastic. The Institute has also conducted outreach trips to the Center for Lowell History in Lowell, Massachusetts and the Maine Historical Society in Portland. Archivists at these institutions were also very excited about working with the Institute. In the fall the Institute is planning an initial meeting of scholars and other researchers in New England.

Sam Lowe, a Ph.D. candidate in history, has been hired to investigate and organize our research guide. This guide will inventory sources of information archives, collections, organizational records, and experts. This guide will help researchers with their research work by identifying sources, contacts, types and scope of materials, and location.

Another product of our outreach has been the discovery of the current research already in process research, which we


expect mutual support and collective efforts will advance. Some current research areas that individual scholars in New England are pursuing are the Chinese American histories in Lowell, Massachusetts and Maine, a Southeast Asian Oral History in Rhode Island, Lao American and Cambodian American youth in various New England municipalities, Indian Americans in Connecticut, and Korean American restaurants in greater Boston.

Information Presently Available

We are also pursuing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provide supporting data for research. They include Census 2000 analysis. Much of this basic information about Asian American communities has been posted on the web site (<http://www.iaas.umb.edu>), and we will be issuing community profiles in the coming year. Some more specific work includes political participation research, which has to date explored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party affiliation, and political contributions in Massachusetts. A copy of the first and preliminary report,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in Massachusetts," is available from the Institute upon request or is downloadable off our web site, described above. We are also supporting a health needs assessment of Chinatown elderly.

Encouraging Support

Fundraising is essential for the project. We have budgeted \$250,000 over four years. Lead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have been generous in our initial efforts. We are also actively pursuing grants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xpect to hear some positive news soon.

We are very heartened and excited by the progress of AANERI to date. We will be reporting periodically on it and look forward to "telling stories of our communities that have not been told but should be told." 

매 사추세츠대학 부설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는 '뉴잉글랜드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 주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뉴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산재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사회의 관한 필수적인 연구를 총망라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의 역할과 상태 또는 발전 상황을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최초 연구과제를 예로 들면 1880년 이후 메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미국시민사회를 연구하며 또한 미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가담하였던 매사추세츠 주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농업이나 음악, 도시계획 또는 산업 분야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의 영향에 대하여도 연구하려고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 정책이나 계획 수립 과정의 논의에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이 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흔히 외국인이나 뉴카머, 또는 턱걸이 시민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에 대한 선입관들을 없애도록 해 줄 것이다.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의 뉴잉글랜드에서의 역사와 그들이 과거와 현재에 기여한 공헌,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기구나 대협소 또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격감시켜줄 것이다. 현재 많은 기구와 주립 및 사립업체들은 보조금 수여의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정의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고 있다. 또한 자원 할당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나 연구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자료 공백'으로 인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옹호하여야 하는 지역사회 기관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애를 먹고 있다.

프로젝트의 내부 구조

이 프로그램의 목적들을 자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뉴잉글랜드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조성.
2. 연구 안내 및 기타 방법들의 출간.
3. 기존 연구 결과 목록 작성.
4. 기본 연구 진행.
5. 연구 내역 작성.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는 이미 여러 연구 단체들을 접촉하고 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맨 먼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2년도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학회 전국대회에서는 현재 연구학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내용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학을 포함한 여러 학교에서 참석한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동 연구소에서는 매사추세츠 주 로웰에 있는 로웰 역사연구소와 포트랜드에 있는 메인 역사학회도 접촉하였다. 이 연구소들의 자료 보관부에서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와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으며 가을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학자들과 연구원들을 초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 안내책자를 조사하여 모으기 위하여 역사학 박사과정에 있는 샘 로우를 고용하였다. 이 책자는 여러 자료들을 총 망라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는 각 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기관들의 기록, 또는 요약록 등이 포함되며, 이 책자를 이용하면 자료 출처, 관계자, 자료 내용 및 장소들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발굴하여 서로 도우며 힘을 한데 모아 더 나은 자료들을 집적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매사추세츠 주의 로웰시와 메인 주내의 중국 미국시민 역사, 로드 아일랜드 주내 남아시아인들의 구전 역사, 뉴잉글랜드 여러 지역내의 라오스 및 캄보디아 아메리칸 청년들, 코네티컷 주 미 인디

안들, 보스톤 지역의 한국 미국시민들의 음식 접들이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

연구에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0년 인구조사가 있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사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고 (<http://www.iaas.umb.edu>), 새해에는 인구분포도 올릴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내의 선거권자 등록 상황과 정당 분포, 또는 정치헌금을 포함한 정치 참여도 연구 결과가 올려질 것이다. 위에 표시된 웹사이트에 가면 '매사추세츠 주내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선거권자 등록'에 관한 1차 예비 보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차이나타운내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필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재정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기금 모음이 필수적이다. 4년간 25만불의 예산을 세웠으며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의 유자들이 많은 기금을 각출하였다. 보조금이나 각 단체에서의 후원금도 계속해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그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알릴려고 계획하고 있다. **시협**

(한국어 번역: 이의인)



Since the release of data from the 2000 census, it is now commonly known that Asian Americans are the state's fastest growing racial group. Until now,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whether this growth has been accompanied by enhanced levels of Asian American elector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lout.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officials, the news media, and others have all indicated a desire for reliable, detailed, and accessible information and analysis on Asian Americans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an effort to address this lack of information,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under the direction of Paul Watanabe and Michael Liu, recently completed a study entitled,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in Massachusetts: A Preliminary Report on Ten Cities and Towns*, that significantl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Asian American political behavior. The report,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e Institute's website www.iaas.umb.edu, contains the most detailed information ever assembled on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The study analyzes data drawn from resident lists and census tabulations in Boston, Brookline, Cambridge, Lexington, Lowell, Lynn, Malden, Quincy, Somerville, and Worcester. A sophisticated methodology utilizing Asian surnames was employed to identify registered Asian Americans.

Watanabe and Liu found that 25.4% of voting age Asian Americans in the combined ten cities and towns are registered to vote. In comparison, the registration rate for all residents of voting age is more than double the Asian American rate. Additionally, the researchers report that registration rates vary considerably by city or town. For example, Lexington and Brookline have the highest rates and Lowell and Lynn have the lowest.

Of the Asian Americans of voting age who are citizens, only 50.5% are registered to vote compared to 69.5% of all

citizens in the ten cities and towns who are registered.

These figures reflect the fact that by removing non-citizens from the voting age population, the voter registration rate increases only slightly for the total population, but in most cases, increases dramatically for Asian Americans. In other words, Asian American voter eligibility is hampered because a large number of Asian American adults are foreign born and only an estimated 50.3% of them are citizen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Asian American share of adult residents, citizens, and registered voters. Asian Americans account for 8.8% of the total adult residents of the ten cities and towns. Asian Americans constitute the largest share of adult residents in Quincy, Lowell, Malden, Brookline, and Cambridge. The Asian American share of the adult citizen population of the combined cities and towns is 5%. Watanabe and Liu label the gap between 8.8% of the voting age population and the 5% of the voting age citizens as "the voter eligibility gap."

The Asian American share of the total registered voters in the ten cities and towns is 3.7%. Asian Americans constitute the largest share of registered voters in Brookline and Lexington and the smallest share in Lynn, Worcester, and Somerville. The distance between the 3.7% of registered voters that Asian Americans represent and their 5% share of the adult citizen population is identified as "the voter registration gap." The study goes on to indicate the levels of increased Asian American voter registration that would be necessary to close this gap.

Finally, the report examines the party affiliation of Asian Americans. In the ten cities and towns, 56.5% of Asian Americans registered to vote designate no party affiliation. About one-third are enrolled as Democrats and 11% as Republicans.

The Institute anticipates a follow-up to this preliminary report that will examine data from additional cities and towns and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ethnicity. [KACL](#)

Voting Age Population Registered to Vote

	All Resident	Asian American Residents
Boston	53.5% (252,865)	23.5% (8,590)
Brookline	87.0% (41,416)	41.0% (2,435)
Cambridge	63.7% (55,975)	24.6% (2,659)
Lexington	91.6% (20,482)	54.7% (1,203)
Lowell	58.2% (44,695)	20.3% (2,215)
Lynn	68.8% (44,729)	20.6% (686)
Malden	62.9% (28,385)	24.3% (1,463)
Quincy	64.9% (47,172)	24.2% (2,518)
Somerville	60.2% (39,717)	24.8% (1,042)
Worcester	70.2% (92,651)	27.2% (1,605)
TOTAL	61.4% (668,087)	25.4% (24,416)

2000년의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매사

추세츠 주 내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인종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인구증가로 인해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투표참여도 함께 증가하였는지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사회 단체나 정부관리, 또는 뉴스 매체들 공히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및 분석자료들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자료들의 모자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에서는 폴 와다나베와 마이클 리우의 지도하에 최근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정치참여를 잘 알 수 있는 '매사추세츠 주내의 열 개 도시에서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선거권자 등록 보고'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www.iaas.umb.edu의 웹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아시안 아메리칸 선거권자들의 등록 상황에 대하여 가장 잘 집계된 자료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열 개 도시, 즉 보스턴, 부르크라인, 캠브리지, 렉싱턴, 로웰, 린, 몰덴, 퀸시, 소머빌, 및 우스터의 거주인 명부 및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아시안 아메리칸 선거권자들은 아시안들의 성씨를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와다나베와 리우는 상기 열 개 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선거권자들 중 25.4%만이 선거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선거권자의 등록률과 비교하면 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었다. 부가하여 이 선거권자 등록률은 도시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렉싱턴이 제일 높았고 로웰과 린이 제일 낮았다.

아시안 아메리칸 선거권자 중 시민권자는 50.5%만이 등록한 데 반해 열 개 도시의 총 시민들의 69.5%가 등록을 하였다.

선거권을 가진 인구에서 비시민을 제외하면 선거권자 등록률이 총 인구로 따지면 약간 늘어나는 반면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수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영주권자이며 시민권자는 5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성인 주민 분포와 시민권자 분포 및 등록 선거권자 분포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즉 상기 열 개 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총 성년 거주인구의 8.8%이며, 퀸시, 로웰, 몰덴, 부르크라인 및 캠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퍼센트가 높다. 그러

나 시민권을 가진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총 시민권자의 5%에 불과하다. 8.8%와 5%의 차이를 '선거 가능성 격차'라고 하였다.

선거권자 등록을 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총 등록자들의 3.7%밖에 되지 않는다. 렉싱턴과 부르크라인의 퍼센트가 높은 반면 린, 우스터 및 소머빌의 퍼센트는 낮다. 총 시민권자의 5%와 총 등록자의 3.7%를 차지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이 차이를 '등록 선거권자 격차'라고 볼 수 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3%에 해당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정당 선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56.5%가 무소속인 반면 3분의 1 정도가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11%가 공화당으로 접수되어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에서는 다른 도시들에 대하여도 집계를 계속하여 성별이나 연령 또는 인종별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한국어 번역: 이의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

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으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

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서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현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현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추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진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서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

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총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령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정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Am-

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Article III Organization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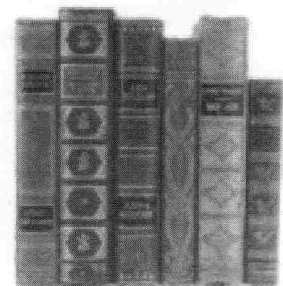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Fax
회장	김성군	President Kim, Song-Kun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H: (978) 664-4554 O: (617) 799-7033	H: (978) 371-1217 O: (617) 482-3344
부회장	이경해	Vice President Dong, Kay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 (508) 824-4080 O: (800) 867-9000	H: (508) 828-1585 O: (508) 828-1585
부회장	신상철	Vice President Shin, Sang Chul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2-0512 O: (978) 442-0531	O: (978) 547-2077
사무총장	김명기	Executive Director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H: (603) 659-5488 O: (603) 659-5488
재무	김광민	Treasurer Kim, Kwang Min	311 Dedham St., Dover, MA 02030 H: (508) 785-8031 O: (781) 320-1969	
대변인	서예진	Spokesperson Suh, Christina	75 Mill Rd., N. Andover, MA 01845 H: (617) 821-3471 O: (617) 310-8247	O: (617) 248-7100
이사장	송기백	Chairperson Song, Gi Baeck	17 Kenney Circle, S. Easton, MA 02375 H: (508) 238-1112 O: (781) 326-9898	O: (781) 326-9898
부이사장	박필수	Vice Chairperson Pak, Phil S.	54 Lakeview Ave., Tyngsboro, MA 01879 H: (978) 649-6595 O: (978) 649-4177	
감사	임병규	Auditor Lim, Byoung Kyu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H: (781) 942-0624 O: (617) 662-1137	H: (781) 942-1792
감사	김문소	Auditor Kim, Moon So (DVM)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978) 475-3534 O: (978) 851-3626	H: (978) 470-3232 O: (978) 851-6408
고문	김갑동	Advisor Kim, Kap Dong (Rev.)	526 Commonwealth Ave., Newton, MA 02459 H: (617) 965-2157 O:	
고문	박경민	Advisor Park, Kyung Min (MD, PhD)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493 H: (781) 899-5009 O:	H: (781) 899-4675
고문	이재신	Advisor Lee, Jay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H: (508) 923-0031 O:	
고문	권진태	Advisor Jin Tae Kwon (Rev.)	8 Jonathan Ln., Bedford, MA 01730 H: (781) 275-7880 O: (781) 275-2524	O: (781) 861-6931
자동 추대고문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뉴햄프셔 한인회장, 메인 한인회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유권자 등록 추진 및 회원관리 위원회 REGISTRATION, CAMPAIGN & MEMBERSHIP COMMITTEE

위원장	이동익	Chairperson, Committee Lee, Dongik	193 Main St., Boxford, MA 01921 H: (978) 887-2552 O: (978) 621-1274	H: (978) 887-1929
북부대표	안병학	Rep., Northern Region An, Byung Hak	50 North St., Andover, MA 01810 H: (978) 689-9546 O: (978) 749-9904	O: (978) 749-9904
서부대표	차주혁	Rep., Western Region Cha, Tony	7 Waring Rd, Natick, MA 01760 H: (508) 651-7678 O:	
중부대표	정석호	Rep., Central Region Chung, Paul S.	65 Broadway St., Newton, MA 02160 H: (617) 928-1023 O: (800) 473-1922	O: (617) 267-5009
남부대표	강세현	Rep., Southern Region Kang, Sae Hyun	166 Alfred Rd., Milton, MA 02186 H: (617) 361-0373 O: (617) 561-3111	
위원	조정자	Member, Committee Cho, Jung Ja	101 Lovejoy Road, Andover, MA 01810 H: (978) 474-4780 O: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위원	이경해	Chairperson, Committee Dong, Kay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 (508) 824-4080 O: (800) 867-9000	H: (508) 828-1585 O: (508) 828-1585
위원	김벤자민	Member, Committee Kim, Benjamin, W.	231 Harvard Ave. (Metro Boston), Boston, MA 02134 H: (617) 277-1128 O: (617) 513-8223	
위원	김진동	Member, Committee Kim, Jin Dong	39 Pleasant St. #B-18, Northborough, MA 01532 H: (508) 393-3677 O:	
위원	김기석	Member, Committee Kim, Kisuk	1 Terrace Rd., Weston, MA 02493 H: (781) 899-3453 O: (617) 332-2800	H: (781) 891-6083

위원 최원길 Member, Committee 150 Sawyer Lane, Tewksbury, MA 01876
Choi, Won Kil H: (978) 858-0810 O: (978) 688-5418

홍보 위원회 COMMUNICATIONS COMMITTEE

위원장 이효춘 Chairperson, Committee 10 Bennington St., Newton, MA 02158
Lee, Hyo Choon H: (617) 244-6938 O: (617) 300-2417
위원 이상우 Member, Committee 1006 Sterns Hill Road, Waltham, MA 02451 H: (617) 969-8234
Lee, Sang Woo H: (781) 642-7135 O: (617) 964-8044
위원 안일민 Member, Committee 750 F Brookside Dr., Andover, MA 01810
Ahn, Il Min H: (978) 683-9273 O: (603) 893-2444

출판 위원회 PUBLICATION COMMITTEE

위원장 이의인 Chairperson, Committee 7 Goffe Rd., Lexington, MA 02421
Lee, Eui In (PhD) H: (781) 862-5270 O: (781) 981-4544 O: (781) 981-0783
위원 박성준 Member, Committee 1131 Avalon Dr., Peabody, MA 01960
Park, Sung-Jun H: (978) 532-3525 O:
위원 서예진 Member, Committee 75 Mill Rd., N. Andover, MA 01845
Suh, Christina H: (617) 821-3471 O: (617) 310-8247 O: (617) 248-7100

정치 활동 및 인턴후원 위원회 POLITICAL ACTION AND INTERNSHIP SUPPORTING COMMITTEE

위원장 신상철 Chairperson, Committee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Shin, Sang Chul H: (781) 862-0512 O: (978) 442-0531 O: (978) 547-2077
위원 김성인 Member, Committee 6 Zambom Terrace, Andover, MA 01810
Kim, Sung In H: (978) 738-0034 O: (617) 737-3243 O: (617) 338-1280
위원 김은한 Member, Committee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0-9028
Kim, Eun Han (MD) H: (781) 861-0437 O: (781) 665-8912
위원 김대권 Member, Committee 2 Dimitrios Circle, Peabody, MA 01960 H: (617) 719-0109
Kim, Dae Kwon H: (978) 531-8861 O: (617) 664-6267 O: (617) 664-5219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MITTEE

위원장 노명호 Chairperson, Committee 1370 Mass Ave., Arlington, MA 02476
Lowe, Myeong Ho H: (781) 595-4065 O: (781) 648-4783
APAC 김성군 Member, Committee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9 H: (978) 371-1217
Kim, Song-Kun (Esq.) H: (978) 664-4554 O: (617) 482-1300 O: (617) 482-3344
AAUD 최홍균 Member, Committee 228 Depot St., Easton, MA 02375 H: (508) 230-3770 O: (508) 824-6696 x512 O: (508) 822-1381
Choi, Hong Kyun (PhD)
MIRA 지형민 Member, Committee 200 Brookside Dr., Andover, MA 01810
Jee, Hyung Min H: (978) 821-7648 O: (603) 749-9904
기타단체 캄벨 Member, Committee 100 Littleton Road, Westford, MA 01886
Campbell, Robert H. H: O: (978) 692-4711 O: (978) 392-0570

인권 옹호 위원회 CIVIL RIGHTS COMMITTEE

위원장 박대위 Chairperson, Committee 107 Scotland St., Hingham, MA 02043
Park, David H: (781) 740-1286 O: (617) 719-8200 O: (781) 740-8032
위원 고일석 Member, Committee 5 Cityview Circle., N. Providence, RI 02911
Koh, David I. H: (401) 353-6180 O: (401) 944-1110 O: (401) 944-1106
위원 김양길 Member, Committee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87-8942
Kim, Yangkil H: (978) 691-5108 O: (978) 247-2103 O: (978) 247-2603

시민권 취득 위원회 CITIZENSHIP COMMITTEE

위원장 박경수 Chairperson, Committee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Park, David K. (Esq.) H: (617) 964-1140 O: (617) 973-3536
위원 김한수 Member, Committee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H: (781) 937-8895
Kim, Hansoo H: (781) 275-2409 O: (508) 383-7721
위원 함성문 Member, Committee 16 Georgetown Ln., N. Easton, MA 02356
Ham, Seong-Moon H: (508) 238-5047 O: (508) 697-4632

청년 위원회 YOUNG GENERATION COMMITTEE

위원장 김연숙 Chairperson, Committee 25 Braintree Hill Office,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Corkum, Yon (CFP) H: (781) 821-5825 O: (781) 562-2020 O: (781) 562-1010

위원	김강호	Member, Committee Kim, Kang Ho	450 Brook Side Dr. #H, Andover, MA 01810 H: (978) 975-2677 O: (781) 663-4465	O: (781) 663-4759
위원	김원주	Member, Committee Kim, Won Ju	10 Rogers St. , Apt. 215, Cambridge, MA 02142 H: (617) 494-1591 O:	

지역 간사

REGIONAL REPRESENTATIVES

NH주	한윤영	New Hampshire Rep. Han, Yun Young	353 Maple St. , Manchester, NH 03103 H: (603) 893-6373 O: (603) 622-8883	
NH주	오수택	New Hampshire Rep. Oh, Steve	3 Stone Post Rd. , Salem, NH 03079 H: (603) 898-6576 O: (603) 434-8399	
RI주	정정욱	Rhode Island Rep. Jhung Wook, Jhung (MD)	61 Heritage Road, Seekonk, MA 02771 H: (508) 336-5580 O: (401) 729-2711	H: (508) 336-0927 O: (401) 729-3204
ME주	채도경	Maine Rep. Chai, Dou Kyung (MD)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H: (207) 622-9757 O: (207) 623-3515	O: (207) 626-9277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무순)

Terms of Directors

2003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연직이사(회장단)				
김성균, 이경해	최원길, 김양길	안병학, 박대위	고일석, 이동익, 노명호, 박경수	박필수, 임병규, 김기석, 김한수
신상철, 김명기	김갑동, 김진동	송기백, 박경민	정석호, 강세현, 조정자, 김대권	김문소, 김성인, 이재신, 이효춘
김광민, 서예진	이의인	이상우, 김은한	김원주, 지형민, 최홍균, 캄 벨 김벤자민	함성문, 안일민, 김강호, 차주혁 박성준, 제시카 리

협회 주요 사업 계획

2003년도

Major Activities

FY 2003

1. 회의 : 총회 1회, 이사회 4회, 상임이사회 및 상임임원회 2회, 편집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2. 출판 및 홍보 : 회지 발간 1회, 뉴스레터 발간 1회, 매체 등 각종 홍보 활동
3. 캠페인 : 각종 캠페인 4회 이상(유권자 등록 및 투표,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등)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 2회 (6월과 10월)
5. 초청 간담회 : 전국 한인 단체 결성 관련 등
6. 기금 모금 : 정치 인턴 후원 모금 파티 (5월)
7. 여타 단체와의 유대 : 전국 대회 참가, 여타 소수 민족 회의 참가 등

INCOME		EXPENSE			
Membership Due	\$940.00	Printing	\$1,157.24	Advertisement	\$500.00
Officer's Due	\$5,700.00	Communication	\$720.10	APAAC	\$40.00
Ad. Income	\$5,600.00	Fundraising	\$6,179.58	Flowers	\$274.00
Donation	\$13,060.00	Scholarship	\$4,000.00	Supply	\$530.76
	-----	Donation	\$500.00	Stamps	\$278.19
		Adm. Expense	\$3,573.98	Food	\$200.00
		(1999-2000)		Others	\$741.47

TOTAL INCOME	\$25,300.00			TOTAL EXPENSES	\$15,818.91

Total Income	\$25,300.00	Beginning Cash Balance	\$19,042.63
Total Expense	\$18,695.32	Net Income	\$6,604.68
Net Income	\$6,604.68	Ending Cash Balance	\$25,647.31



2003년도 예산

수입 예산		지출 예산	
회비 (\$10x300명)	\$3,000	협회지 12호 출판비	\$10,000
이사회비 (50명)	\$10,000	뉴스레터 발간비	\$1,200
협회지 12호 광고	\$13,000	광고, 타 기관 지원비	\$2,000
정치인턴모금파티	\$10,000	이세 활동 지원비	\$1,000
AAUD 티켓	\$900	정치인턴 장학금	\$7,000
기타 찬조비	\$7,000	정치인턴 모금파티 경비	\$7,500
		12회 총회 경비	\$1,000
		전국대회 참가비	\$1,000
		인건비	\$5,500
		AAUD 티켓	\$900
		우편비	\$1,700
		사무비	\$1,000
		비품비	\$1,500
		전화비	\$900
		은행 경비	\$200
		예비비	\$1,500
총 계	\$43,900	총 계	\$43,900

한인의 힘을 뭉칩시다. 시민협회에 가입해 주십시오.

오른 쪽에 있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셔서 회비와 함께
김 광민 재무에게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세대인 젊은 2세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회장 김 성 군 (617)799-7033
294 Washington St., Suite 436, Boston, MA 02108

사무총장 김 명 기 (603)659-6732(핫라인)

<http://www.KACLNE.org>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 (갱신 또는 년회비 납부) () New(신규)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주 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ounty) _____ 집전화: () _____ - _____

소속교회 혹은 기관: _____

위 본인은 협회 현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서명 _____ 서명 _____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 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 (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 이상 \$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s) : \$ _____ 총계 (Total) \$ _____ (수표동봉)

수표작성 (Make checks payable to) : KACL

Mail to :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Kwang Min Kim (재무 김광민, 781-320-1969)
311 Dedham St., Dover, MA 02030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 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Song-Kun Kim
294 Washington St., Suite 436, Boston, MA 02108
(회장 김성균, 617-799-7033)

시민협회 핫라인: (603) 659-6732 Michael M. Kim (사무총장 김명기)
24시간 문의 및 연락 가능

입회 신청서의 뒷면으로 백지입니다.

(This page is left blank intentionally.)

간판

초이스간판 (617)889-0984

건축설계

선아건축 (508)584-9703
 오규동 컴퓨터그래픽 (508)317-8933
 장스 건축 (401)274-6088
 지선 디자인 (617)325-1007
 크리스탈 윈도우 (781)961-7300
 K&J Service (781)431-9541

가정의

Grace Kim 가정의 (978)475-5656

기관 단체

뉴잉글랜드 경제인협회 (617)567-7152
 뉴잉글랜드 골프협회 (617)298-2288
 뉴잉글랜드 공군보라매 (978)392-9255
 뉴잉글랜드 과학자협회 (978)440-9842
 뉴잉글랜드 교역자협의회 (617)491-0855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401)739-7168
 뉴잉글랜드 세탁인협회 (617)944-7432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617)799-7033
 뉴잉글랜드 의사협회 (508)336-5580
 뉴잉글랜드 이북5도민회 (781)863-1239
 뉴잉글랜드 태권도협회 (413)796-1400
 뉴잉글랜드 평통자문협회 (978)897-4845
 뉴잉글랜드 학교협의회 (617)232-1708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395-6968
 뉴잉글랜드 해병전우회 (617)306-1352
 뉴햄프셔 한인회 (603)537-1507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738-8735
 메인 한마우정회 (207)772-6622
 보스턴 체육회 (781)395-3524
 보스턴 한국 총영사관 (617)641-2830
 보스턴 한미 노인회 (617)484-2831
 보스턴 한미 노인대학 (781)899-5009
 한미 의료 봉사협회 (781)438-6886

기독교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 보스턴 한인교회 (617)542-5420
 뉴잉글랜드 한인감리교회 (781)646-1050
 라이스 한인침례교회 (508)393-5313
 렉싱턴 한인교회 (781)771-9660
 목양 교회 (781)793-9330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늘푸른교회 (617)739-4977
 보스턴 사랑의 교회 (617)789-5683
 보스턴 산성장로교회 (617)926-7195
 보스턴 새누리한인교회 (617)286-2534
 보스턴 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선교교회 (617)789-4964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647-0190
 보스턴 시온성교회 (781)275-9327
 보스턴 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열린 교회 (617)325-8703
 보스턴 영광교회 (978)658-0150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 침례교회 (508)393-8455
 보스턴 중앙교회 (617)731-4381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인연합감리교회 (781)863-8463
 북부보스턴 연합감리교회 (978)470-0621
 순요한 교회 (781)275-2524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628-9526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413)783-6636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시온교회 (413)772-6926
 안디옥교회 (508)534-3394

앰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649-0604
 예루살렘 침례교회 (508)836-2628
 우스터교회 (508)799-4488
 윌렘한인교회 (781)893-0128
 은혜교회 (617)643-0463
 좋은 감리교회 (617)441-5248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617)861-3877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617)491-1474
 린치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한인성서침례교회 (508)263-8459
 (뉴햄프셔주)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내슈아 한마음한인교회 (603)889-2078
 뉴햄프셔 반석감리교회 (603)421-9100
 뉴햄프셔 장로교회 (603)437-5134
 레바논 한인장로교회 (781)279-4345
 셸렘좋은교회 (617)779-0125
 (로드아일랜드주)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401)941-5075
 상동감리교회 (401)351-2347
 시온 감리교회 (401)739-8439
 제일교회 (401)944-0520
 (메인주)
 메인 무지개 교회 (207)774-1617
 메인 제일감리교회 (207)989-7310
 메인 한울 선교교회 (207)731-4381
 (커네티컷주)
 뉴런던교회 (860)848-7228

내과

정태진 내과 (617)642-8137

냉난방·배관

P.S.I. (617)547-0211

노래방·카페

도레미 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Avenue-X (617)661-2901
 진짜네 노래방 (860)895-8607

당구장

초이스 당구장 (617)254-3944
 뉴보스턴 당구장 (617)424-6326

떡집

형제떡집 (978)975-3303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동창회

건국대학교 동창회 (401)738-8735
 고려대학교 동창회 (617)441-9713
 동래고 동창회 (617)738-4714
 배재중고등학교 동창회 (978)474-4780
 서울대학교 동창회 (508)923-0031
 서울신학대학교 동창회 (617)489-8855
 이화여고 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781)235-4035
 중앙대학교 동창회 (603)622-8883

미용실

김씨네 머리방 (617)739-1067
 새빛미용실 (781)894-4343
 순이미용실 (978)897-4321
 AirWave미용실 (617)354-9255
 Scotty's of Lexington (781)861-1277

변호사

김성균 변호사 (617)482-1300
 김성희 변호사 (617)884-4009
 박요한 변호사 (617)499-0011
 한석훈 변호사 (781)933-4751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ish 변호사 (617)367-4949

보석

국제보석 (617)523-2553
 메타관보석 (617)298-6661
 보스톤 보석 (617)723-7979
 우리보석 (617)338-2799

보험

김세경보험 (MetLife) (508)995-2600
 고영복 (MetLife) (978)646-3042
 조종운 종합보험 (617)726-4845
 한인 종합보험 (617)782-8800
 J. C. 김종천 보험 (617)234-0055

부동산

이경해 (Lee Associates) (800)867-9000
 이정선 (617)933-0909
 이종수 (617)799-6158
 최선희 (617)665-9277
 Ann Kim (617)864-4430
 IBR 부동산 (781)665-9277

불교

문수사 (781)224-0670
 미국불교 (심광사) (617)787-1506
 서운사 (508)529-3224

비디오

가치 비디오 (617)782-8874
 진 비디오 (617)782-9282
 한국 비디오 (617)628-0226

산부인과

강길원 산부인과 (978)957-4660
 김일 산부인과 (978)879-0098
 이운로 산부인과 (978)580-0044

생선가게

Boston Fish (617)282-2980
 Captain Boston Fish (781)395-8138
 Sea to You (617)350-0130
 Simon (617)442-1706

선물용품

소라 화장품 (617)876-7200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정상국 소아과 (508)234-7311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야식당 (보스톤) (617)236-5858
 고려원 (617)492-9643
 귀빈식당 (617)375-0545
 나라식당 (617)338-5935
 나라따 (617)868-2226
 뉴가야 (617)497-5656
 뉴장수갈비 (781)272-3787
 뉴코리아 (617)876-6182
 다모아그릴 (617)783-2116
 다빈 (781)860-0171
 다계시마 (617)566-0200
 대화 일식집 (617)566-7344
 동강식당 (978)686-0389
 동방회관 (978)394-4858
 마사 (781)272-1290
 미나토 스시 (617)731-5200
 미스타 스시 (617)731-1122
 민속식당 (617)783-8702
 보고카페 (617)776-8857
 부산집 (508)897-5107
 북경반점 (617)623-7220
 사라식당(NH) (603)624-0770
 사뽀로 (617)964-8044
 서울 이찌 (508)363-0891
 서울 키친 (617)787-2822
 서울회관 (781)391-5606

스시킹 (617)978-8580
신라식당 (617)547-7971
쌍둥이 레스토랑 (508)797-4009
수라 레스토랑 (401)277-9088
아시아나 그릴 (781)646-2766
아시아 레스토랑 (617)489-6333
아시아 바베큐 (617)354-9255
야수 (781)894-9783
요코하마 (508)689-4047
우정식당 (978)772-5742
우촌집 (617)623-3313
장음식주문 (617)623-7537
칼라분식 (617)787-5656
코리아나 (617)576-8661
코리아 하우스 (617)338-8585
하나스시 (617)868-2121
한강 (617)739-6221
J.P. Seafood Cafe (617)983-5177

식품점
고향식품 (413)586-2682
농장식품 (617)232-0800
뉴욕식품 (617)868-9850
NH 서울식품 (603)626-1334
롯데식품 (617)661-1194
미림식품 (617)783-2626
번영식품 (978)537-8180
서울식품 (603)626-1334
쌍둥이네식품 (508)798-2547
아시아나식품 (401)438-9992
오미식품 (413)736-7878
우리식품점 (978)772-1772
은혜식품 (603)893-8511
전통암마켓 (603)226-4546
정인식품 (401)943-8904
제일식품 (413)592-5452
진미식품 (617)964-2668
청계종합식품 (978)772-5213
한국종합식품 (617)623-9620
한아름식품 (617)547-8723

심리상담
임나경 심리상담소 (617)738-9622
최구미 (617)277-4560

안과
글로리아 우 안과 (617)734-0605

언론기관
보스톤 투데이 (617)254-1504
조선일보(뉴욕) (718)463-4443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 보스톤지국 (617)713-0010

여행사
대한항공 (617)261-3883
범아여행사 (617)482-6237
오리엔트여행사 (800)446-4345
유니버스여행사 (888)666-170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외과
박종건 성형외과 (978)879-7575

운송 이사
국제해운 (781)935-5903
별양해운 (978)470-8272
보고운송 (888)303-8822
보스톤운송 (617)984-2624
보스톤 한국이사집 (617)560-5851
Ace 이삿짐 (617)306-1868
E-Z Moving (617)560-5851

응자
이경해 금융 (508)880-3535
이종수 파이낸스 (617)799-6158

이발관
한국이발관 (617)278-0275
한인이발관 (617)783-3213

인쇄소
큰나무 인쇄소 (617)719-8200

자동차 정비·바디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태양자동차 정비 (781)391-7700
Complete Car Care (978)858-0074
Foreign Motor West (508)237-1212
Sooner Lube (978)858-0070

전자제품
한국위성 수신안테나 (508)540-0886

전화·무선전화
보스톤 폰카드 홀세일 (617)357-8021
우리 셀룰라 (617)524-8282
Allston TV(AT&T) (617)787-1667
AT&T(노진희) (617)450-4823
Call Space (508)754-2020
C.J. Page One (617)427-3600
Crystal (978)687-2118
Exit (978)689-8080
MCI(Kelly Kim) (617)284-7017
YDIS(분성욱) (800)238-8231

정신과
송남수 정신과 (781)762-6592

제과
서울제과점 (617)787-6500
형제떡집 (978)975-3303

주류
그린소주, OB (617)445-9304
진로소주 (508)651-8186
카스맥주 (781)758-7501

지압·단전
단센터 (단전호흡) (781)647-7733
신나다수기경락원 (781)435-1309
한국지압원 (617)278-0275

천주교
뉴햄프셔 한인 천주교회 (603)552-8212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617)244-9685
커네티컷 한인천주교회 (203)937-6371

치과
김영호 치과 (617)894-1127
송백종 치과 (617)264-9966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태준 치과 (781)647-8000
오 치과 (617)924-6452
찰스 허 치과 (781)861-8978
한은애 교정치과 (781)862-0930
홍종희 치과 (781)321-5656
Cambridge Dental (617)492-8210
Dental Associates (617)776-5900

컴퓨터
J&S Company Ltd. (617)479-1283
Micro Dimensions (617)320-1969
Notebook Plus (617)267-8439
SMY Solutions, Inc. (603)870-9108

태권도
김영곤 (978)688-1037
박선우 태권도장 (603)433-2099
Alpha TKD Academy (978)256-4904
Ans TKD (978)453-5387
Central Institute of TKD (617)776-6161
Cho Olympic TKD (617)630-5137
Cho TKD Academy (781)235-3037
Choe TKD Academy (508)852-0009
Choi TKD Academy (413)736-1008
Jae Jo TKD (508)820-1618
Jae Kim TKD (617)266-5050

Kwon TKD Academy (978)858-3699
Lee TKD College (781)575-1777
Park's TKD Academy (978)345-3007
World TKD Academy (781)942-2299

택시
보스톤 콜택시 (617)783-1234

한글학교
뉴잉글랜드 학교협의회 (617)232-1708
남서부 한국학교 (781)575-1777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08)798-2677
뉴햄프셔 한인학교 (603)437-5134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401)274-2044
메인 한글학교 (207)725-1309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617)366-2743
보스톤 한국학교 (617)739-2663
보스톤 백합한국 학교 (781)275-8233
보스톤 시온성 한국학교 (978)256-5655
보스톤 사랑의 한국학교 (617)661-7532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508)435-4579
보스톤중앙교회 한국학교 (781)682-9890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978)468-1625
새싹 한국학교 (603)926-3411
성요한 한국학교 (781)275-2524
우스터트윈시티 한국학교 (508)799-4488
케임브리지 한국학교 (617)491-1474
퀸지영생 한국학교 (781)356-8586

한복점
은혜 한복 양품 (978)772-3799
장미 수예 한복 (718)359-0430

한의원
광개토 한의원 (781)643-3679
동일 한의원 (617)770-1256
일선당 한약방(Allston) (617)787-4503

회원
모나미화원 (617)325-5802
와일드플라워 꽃집 (508)668-6263
Anderson Florist (781)894-1843
Mystic Florist (617)666-3116

회계사
김양일 (617)491-4959
김창근 (781)935-4620
이현주 (781)944-2442

기타
모닝 글로리 (617)628-0226

혹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이 된 경우, 또는 전화번호를 바꾸시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음 호에 정확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아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위원장 이의인 (781)862-5270



시민연맹을 마치고 (2001년 11월 12일)



시민연맹에 참석 (2002년 12월 2일)



제1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2001년 10월 26일)



회원들과 환담하는 전신애 노동국장



제12회 총회에서 강연하는 김영집
초대 시민협회 회장



제12회 총회를 마치고 (2002년 10월 27일)



시민권취득 워크샵 (2001년 10월 27일)



시민권 취득 워크샵 (2002년 6월 15일)



편집회의를 마치고



제43차 이사회 (2002년 2월 2일)



제44차 이사회 (2002년 6월 15일)



제45차 이사회 (2002년 9월 21일)

시민협회의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70 Mystic Ave., Medford, MA 02155
Tel:(781)395-6968 Fax:(781)395-6816

회장: 조영태 이사장: 손석구

www.KoreanSociety-NE.org

뉴잉글랜드 의사 협회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61 Heritage Rd., Seekonk, MA 02771 (508)336-5580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보스톤 지역 협의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Area Council (10th Term)

BFL 535 Boylston St., Boston, MA 02116

Tel: (617) 407-6633 Fax: (617) 375-0547

회 장: 장 승훈	기 조 실 장: 이 병철	위 원 (무순)
부 회 장: 한 윤영	인 권 보 장 위 원 장: 김 양길	조 봉준 이 문봉
간 사: 윤 광현	정 책 분 과 위 원 장: 박 선우	주 봉갑 이 총시
고 문: 남궁 연	교 류 분 과 위 원 장: 신 고희	정 정욱 허 영자
	교 육 분 과 위 원 장: 강 경식	신 완철 강 경신
감 사: 강 한일	종 교 분 과 위 원 장: 한 상신	서 대식
재 무: 최 한길	여 성 분 과 위 원 장: 윤 경숙	
서 기: 이 경해		

축 시민협회 창립 12주년



2002년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 장: 전 좌 근
총무 부장: 정 우 원 문화부장: 이 정 원
재무 부장: 이 승 희 학생부장: 김 영 민
부녀봉사부장: 양 예 모 간사: 이 근 호

The Korean American Assn of Rhode Island

P.O. Box 40505, Providence, RI 02940-0505

Tel: (401) 738-8735 Fax: (401) 738-8741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116 Lovering St., Manchester, NH 03109

Tel: (603) 669-8213 Fax: (603) 669-5836

시민협회의 제12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12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회 장: 서 일

이사장: 박춘근

임원 및 회원 일동

보스톤 한미 노인회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2 Coach Rd., Lexington, MA 02420

Tel: (781) 863-1239 Fax: (781) 860-7636

시민협회의 제12회 정기 총회와 회지 12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주 봉 갑
임원 및 회원 일동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

41 Laxfield Rd., Weston, MA 02493

Tel: (781) 899-5009 Fax: (781) 899-4675

시민협회의 제12회 정기 총회와 회지 12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장 박 경 민

부 학 장: 강길원 기획: 권이덕

섭외홍보: 김성인 출판: 이의인

로드아일랜드 한인 경제인 협회

Korean American Commerce & Trade Association of R.I.
21 Orchard Valley Drive, Cranston, RI 02921

시민협회의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 장 (President) :	홍진섭 (Hong, Jin Sup)
부 회 장 (Vice President) :	이정강 (Lee, Jung Kang)
사무총장 (Secretary of General) :	임형택 (Lim, Hyung Tak)
재무부장 (Secretary of Treasury) :	조경신 (Cho, Kyung S.)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274 Main St., Reading, MA 01876 Tel: (617) 944-7432

회 장: 최동인 (617) 944-7432
이 사 장: 장병준 (978) 977-9766
부이사장: 김경한 (978) 741-3337
총 무: 김성배 (978) 927-9011
사무총장: 손정봉 (978) 988-3688
재 무: 김동기 (603) 890-1039
자문위원: 윤익중, 김기석
조봉준, 노명호



시민협회의 제12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The New England Chapter (KSEA-NE)

(31st Term: 7/1/2002 - 6/30/2003)

10 Pine Street, Sudbury, MA 01776 (978) 440-9842



<http://www.kseane.org>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Eonjip David Choi
Vice President/President-Elect
Kyung Don Kim, PhD
General Secretary
Shi Woo Lee, PhD
Membership
Sang Yong Jon, PhD
Public Affairs
Daekeun Kim
Treasurer
Jin Kyo Kim
Industry Liaison
Jong Chun Park
Special Events
Younghwan Kwon, PhD
Postdoc Affairs
Ilsoon Lee, PhD
Young Generation Affairs
Jihwan Choi

Graduate Student Affairs
Yongsuk Kim (MIT-KGSA)
Undergraduate Student Affairs
Caroline Ahn (MIT-KSA)
Danny Kim (MIT-KSA)
Webmaster/Editor
Julie K. Yoo

Professional Group Leaders

Bioscience (NEBS)
Hyoung Tae Kim, PhD
Chemistry
Youngkwon Kim
Civil
Dong Ho Choi, PhD
EE/CS
Seong Wan Ahn
Chemical Engineering
Dae Hi Hwang

NE Venture Forum

Hong Ki Paik
Textile
Choong See Lee, PhD

Councilors

Do Chul Choi, PhD (00-03)
Kwang Soo Kim, PhD (00-03)
Dong-Woo Kim, PhD (01-04)
Sam Lee, PhD (01-04)
Hak Jong Chang (02-05)
Gyoo Yul Jung, PhD (02-05)
Kyungsik Kang, PhD (HQ)
Nak Ho Sung, PhD (HQ P)
Kang-Won Wayne Lee, PhD (HQ)
Kwiyoung Jung, PhD (HQ)

Auditors

Choong See Lee, PhD (00-03)
Se Ja Oh, PhD (00-03)

Join KSEA, New England Chapter
Visit www.kseane.org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c/o Jay Shin Lee,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Tel: (Home) 508-923-0031 (Office) 508-577-9424

회장/이사장: 이재신
명예회장: 강경식

부회장: 정정욱
총무: 변종원

재무: 윤용훈 홍지복 기획: 윤상래 권이덕
편집: 조한준 학생: 강명구 음악: 황보협

고문: 김영호 박병덕 박경민 인준식 감사: 김재호 김호영 김양일

이사: 강길원 고일석 김선혁 김성빈 김은한 김인수 김정선 김청하
도상탁 민경삼 박영철 박태영 변화경 성낙호 손정호 안광원
안병호 윤선희 이기용 이민용 이영욱 이의인 이향숙 이호영
이희규 장세중 장용복 정상국 정용국 정진항 정태진 채도경
최찬혁 최홍균 한서동 한병의

시민협회의 제12회 정기 총회를 축하합니다.

메인 한미우정회

The Korean-American Friends Association

49 Hillside Ave., Cumberland, ME 04021

Tel: (207) 829-3932

회 장: 정 세 련

부회장: 박 종 택

총 무: 이 원 섭

여성회장: 구 미 자

재정부장: 구 미 자

문화예술부: 윤정교(정)

Kenneth Kim(부)

홍보부장: 김재현(정), 이승원(부)

체육부장: 최인환(정)

이사장: 채도경

이 사

정세련, 박종택, 김재현

이창호, 김광도, 김영자

신영옥, 구미자, 안영례

정해성, 정희영, 권학범

뉴 잉글랜드 지역

한 인 교 회 협 의 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New England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Tel: (781) 275-2524 Fax: (781) 861-6931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 원

회 장: 권 진태 목사

부회장: 김 태환 목사

부회장: 송 남수 장로

총 무: 최 영호 목사

서 기: 박 찬수 목사

회 계: 정 수일 장로

실 행 위 원

강 명석 목사

김 영호 목사

김 정대 목사

전 덕영 목사

김 폴 목사

서 영주 목사

강 준모 목사

김 회창 목사

정 경조 목사

최 영호 목사

한 상신 목사



성요한 감리교회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교회전화 (781) 275-2524, 팩스 (781) 861-6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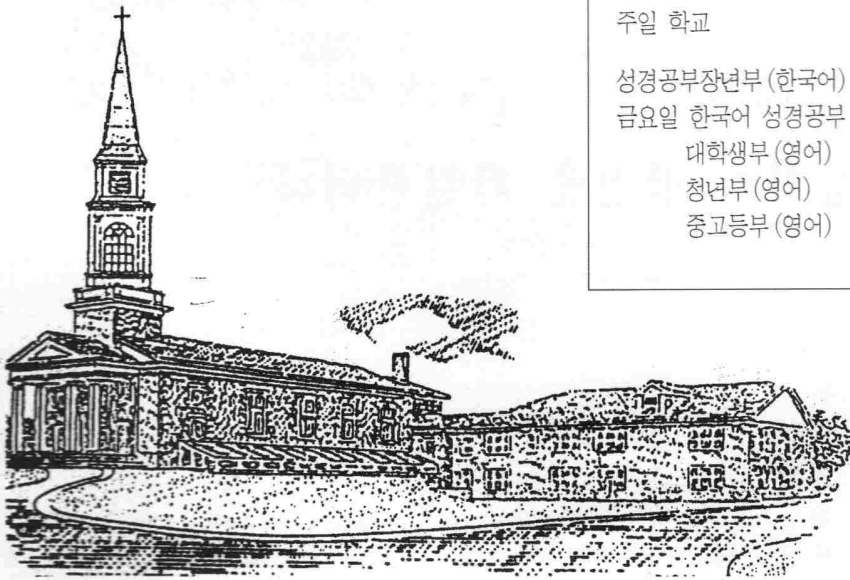
담임목사: 권진태
(781)275-7880

영어예배: Dr. Duane Garrett
(781)862-9492



교회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영어)	일요일 오후 1:45 (Lexington)
Harvard Square-	일요일 오전 9:30 (Grapevine)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주일 학교	일요일 오전 11:30
성경공부장년부 (한국어)	일요일 오전 10:00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대학생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청년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 (영어)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전 9:00



* 시민협회 후원단체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U.S.A.)

Founded in 1953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Internet: <http://www.kcbost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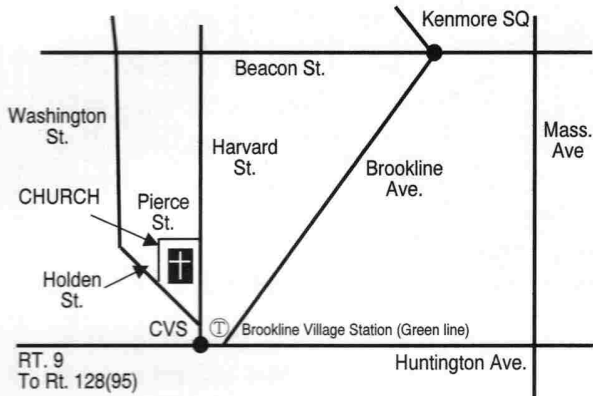


담임목사: 이 영 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목사관: (617) 469-4289

부목사: Rev. John Chung (영어예배 담당)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2:00
유년부 예배	오후 12: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00
영어 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 성경 공부

새신자반	오전 10:30 (주일)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30 (주일)
수요 여성 성경 공부	오전 10:30 (수요일)
영어 예배부	오후 7:30 (금요일)
청년부	오후 7:30 (금요일)
대학부	오후 7:30 (금요일)
보스톤 한국학교	오전 9:30-오후 12:30 (토)
문의전화:	(508) 431-1351

Visit us on the Web at

<http://www.BethanyBrookline.org> for information, directions, news and other resources. Any questions, please email us at: Ministry@BethanyBrookline.org.

Bethany Christian Fellowship

English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Church: 617-731-7706 Fax: 617-739-2663

Our Pastor:

Rev. John Chung 617-448-8328 (jchung@bethanybrookline.org)

Sunday Worship

- 2:00 PM in the Main Sanctuary.

Growth Group Bible Study

- Weekly Bible Study Groups meet all over the city.
- Contact Ed Park to join a group at Edkpark@aol.com or 617-577-5604.

Saturday Morning Prayer Meeting

- Prayer Meeting is at 9:30-10:30 AM in the Sanctuary every Saturday Morning.

College Group

- Friday Night Bible Study at 7:30 PM meets at Church. Please contact pastor Ken Hwang for more information at servant4x@yahoo.com or 978-884-0407.

Daytime Women's Group

- Meets every Wednesday at 11:00 AM at member's homes. Please contact Semi Min for information and location at 781-324-7262.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336 Norwood Ave., Warwick, RI 02888

E-mail: Jungang@aol.com Web: http://www.rikoreanchurch.org

교회: (401) 941-5075 팩스: (401) 941-5163

담임 목사: 서영주

교육전도사: 임희숙 (행정 및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김줄리어스 (중고등부)

협동전도사: 박기호

전도사: 정봉진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람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 교회 모임 안내 **

예배 모임	시간
1부 예배	9:00 am
주일 대 예배	11:00 pm
중고등부예배	11:00 pm
주일학교예배	11:00 pm
수요찬양예배	7:30 pm
새벽기도회(월-토)	6:00 am
성경 공부	시간
화요 성경공부	11:00am (장소:교회)
목요 성경공부	10:00am (장소:교회)
영어 성경공부	9:30am (장소:교회)
토요Youth모임	6:30pm (장소:교회)
금요청년회모임	7:00pm (장소:교회)
목장 모임	격주 금 또는 토요일

** 교회 약도 **



미연합감리교 보스톤 감리교회

WESLEY UNITED METHODIST CHURCH

100 Winthrop St., Medford, MA 02155

교회전화 (781) 393-0004

담임목사: 김정수 (978) 557-9969

교육목사: 권오진

집회 안내

영어 회중예배: 10:00 AM

한국어 회중예배: 11:30 AM

유년부, 중고등부: 11:30 AM

청년부: 8:00 PM (금요일)

수요찬양예배: 8:00 PM (수요일)

새벽기도회: 6:30 AM (화-금)

토요조찬기도회: 7:00 AM (토요일)

* I-93 남쪽이나 북쪽에서 오실 때 Rt. 16 West로 오셔서 Boston Ave를 만나시면 좌회전하시고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시면 교회가 왼편쪽에 있습니다.

* Mass Ave 혹은 Rt. 2 에서 오시면 Rt. 16 East로 오셔서 Boston Ave를 만나시면 우회전하시고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시면 교회가 왼편쪽에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산성(山城)장로교회

Greater Boston Fortress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1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617) 926-7195 (교회, Fax) (617) 923-9581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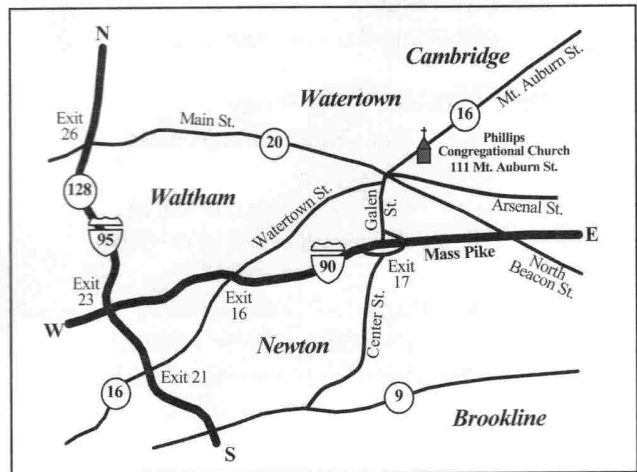
담임목사: 신 언 동

교육목사: 하 광 민 (청년대학부)

교회 약도

집회 안내

주일대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대학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3시
유, 초등부	주일 오후 2시	화요 성경공부	화요일 오후 4시
중, 고등부	주일 오후 2시	구역 예배	둘째 금요일 저녁 8시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월, 토 제외)	월말 기도회	마지막 금요일 저녁 8시



보스톤 문수사

Mun Su Sa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Tel. (781) 224-0670, 224-2536

Fax. (781) 224-1087

법회안내

장미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 박영일 (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아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목요 미사: 목요일 오후 7:30

예비자교리: 주일 오후 2:30

주일 학교: 주일 오후 2:3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68
Tel.: (617) 244-9685

〈성당 찾아오시는 방법〉

Mass Pike (West)에서 Exit 16 (West Newton)으로 나와 Toll Gate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에서 좌회전 한 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 (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보스톤 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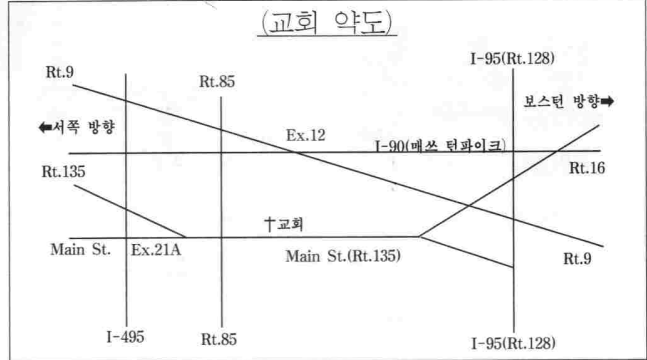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보스톤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26년째,
역사깊은 보스톤 세계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합킨톤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구입한 후,
97년 9월 5일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고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20개 이상의 교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2세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 교회 집회 안내

- ◆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부터 자유로)
- ◆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 수요일 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 ◆ 유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 ◆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6시)
- ◆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7시)
- ◆ 영어성경반 (주일 오전 9시)
- ◆ 청장년부 (금요일 오후 7시)
- ◆ 구역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회 약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435-4579, 팩스 (508)435-5467, 목사관 (508)478-9705

담임목사: 전덕영 교육목사: 옥승웅 협동목사: 김자진 박용준 이신권
전도사: 박연수(유치부) 김성혜(유년부) Eric Park(중고등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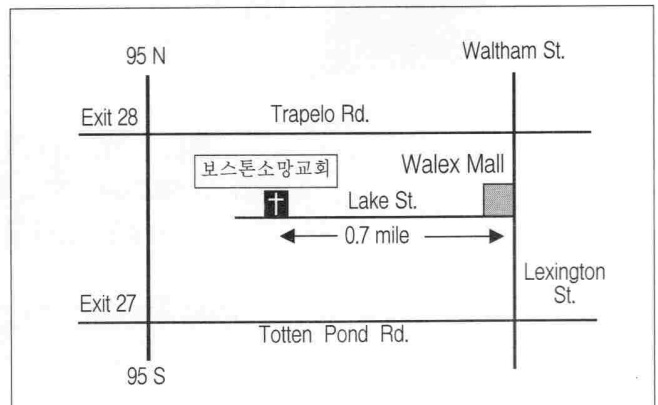
보스톤 소망교회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285 Lake St., Waltham, MA 02451 (교회 ☎781-647-0190)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 크고 놀랍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 주일 예배 오전 11시30분 (주일)
- ◆ 주일 학교 오전 11시30분 (주일)
- ◆ 중, 고 등 부 예배 오전 11시30분 (주일, 영어예배)
- ◆ 구역리더 성경공부 오후 2시 (주일)
-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7시 (금요일)
- ◆ 장년부 성경공부 주중 구역별
- ◆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2시 (주일)
- ◆ 여성 JOY BIBLE 오전 10시30분 (수요일)
- ◆ 찬양과 기도의 밤 오후 8시 (금요일)
- ◆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토)



담임목사 박찬수 목사 (617-484-4069)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603) 430-2929, 430-1115(교회) 430-0040(Fax) 433-7475(목사관)



영 어 예 배 9:30 AM
 한국어 예배 10:45 AM
 주 일 학 교 10:45 AM
 수 요 기도회 6:00 PM
 새 벽 기도회 6:00 AM

목 사: 한상신 Susan Walker

웹페이지 Web page:
www.greenumc.org

이메일 E-mail:
info@greenumc.org

* 495 North나 95 North로 올라 오셔서 95 North의 Toll Gate를 지나 (약 6 마일쯤) Exit 3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신호등을 만납니다. 신호 등에서 왼쪽으로 Turn하셔서 Rte.33 West로 약 4.5마일 가지면 오른쪽에 Great Bay Road를 만나십니다. Great Bay Road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여 들어오시면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북 부 보 스톤 교 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978)470-0621(교회) 470-1998(Fax) (978)689-3990(목사관) (978)475-9672(공중전화)

Email: northbostonkumc@yahoo.com (church), hong0808@msn.com (pastor)

담임목사: 홍석환 Rev. Dr. Seok Hwan Hong, Pastor

전도사: 이병무 안신형 전진우 유원재 오세명 최줄리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1부성찬예배	8:00 am	화	성경 공부	9:30 am
				기도 모임	8:00 pm
	성인 성경반	8:30 am	수	찬양 예배	8:00 pm
	영 어 예 배	9:30 am	목	성가 연습	7:30 pm
			금	성경 공부	8:00 pm
	2부 대예배	11:00 am		청년부 (20대)	5:00 pm
	주 일 학 교	11:00 am	토	한국학교	9:00 am-12:00 pm
	중 고 등 부	11:00 am		중 고등부	6:00 pm
청장년부 (30대)	12:30 am	속회	새벽 기도회	6:00 am	
			매월 속회별	7:00 pm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www.firstkoreanchurch.org

Tel. (617)491-1474(Church) (617)491-0855(Home)

교회의 비전

- (1) 한국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하여 복음주의 신앙공동체를 이룩한다.
- (2)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한다.
- (3)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다.
- (4) 세계에 봉사할 인재를 배출한다.

* 교회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www.firstkoreanchurch.org)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일설교 등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성결교회

BOSTON EVANGELICAL CHURCH



교육과 어린이 놀이시설 완비

주일예배: 오전 11시 영어: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새벽: 매일 6시
 소그룹제자성경반: 주일 오후 1시30분
 유,초,중,고등부: 주일오전 11시(영어)

담임목사 김희창

(Dr. 22년 목회, 선교학교수 역임)

부목사: 조성호, 전도사: 주유숙

Peter Lee (중고등부-1.5세 대학원)

◆ 영어부 (주일 오전 11시)

English Pastor: Samuel H. Walsh

▶ 인터넷설교: WWW.BOSTONCHURCH.COM

▶ 찾아오는 길: 95번(32Ex)→Rt.3N(26Ex)→62W 0.8마일→우회전 Old Billerica Rd 0.8마일

▶ 교회버스 운영 (978-957-3844)

☞ 부설 보스톤백합한국학교 - 7개 반 - 매주 토요일(9:30)

문의 978-531-8861(김대권 교장)

주소: 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 01730 교회전화: 781-275-8233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 770-2755 (Tel/Fax)

www.youngsang.org

담임: 강준모 목사 (617) 471-0233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나누는 교회”

Direction: Take I-93S from Boston or I-93N from South to Rt. 3S to Cape Cod. Take Exit 18 on Rt. 3 to Washington St (this exit is immediately after splitting from I-93). Take left at Washington St. After crossing the overpass, take right to 1 o'clock direction at the traffic light (there is no sign, but this is the Washington St.) Come to the end of this street. Take a right turn, and the church is on your left.

예 배

모임 및 성경공부

퀸지한국학교

주일예배:	주 일 1:30 pm	주부성경공부:	월 9:30 am	토요일	10:00 am
수요일예배:	수 8:00 pm	청년선교회:	금 7:00 pm		
주일학교(영어):	주 일 1:30 pm	영어회화반:	목 7:00 pm		
아침 기도회:	월-토 6:00 am	주일QT나눔반:	주일 12:30 pm		
	주 일 8:30 am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수 시		

내슈아 한마음 한인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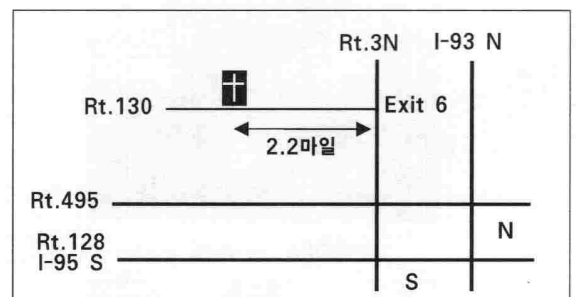
교회목표 1. 성경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교회 2. 초교파적 복음중심의 선교하는 교회 3.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 교회

본교회 집회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유년부 교육	주일 오후 1시 30분
주일 성경공부	주일 오후 3시 45분

한마음교회 성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고후5:8)”



담임목사: 정 태현 (Pastor Tae Hyun Chung)

교회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603)889-2078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888-8040

교회Fax: (603)889-8418

▶ Rt.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톤 성령교회

77 Kennedy Drive, Malden, MA 02148

Tel: 781-756-1004 (천사), 917-370-5954

담임목사: 박헌영 (Rev. Park, Hun Young)

장로: 김 섭 찬양인도: 최학자 집사 반주: 허소희 자매

Hypark2240@hanmail.net



목회 방향

- | | |
|---------------|------------|
| • 오중복음 | • 삼중축복 |
| 1. 구원(중생)의 복음 | 1. 영혼이 잘 됨 |
| 2. 성령충만의 복음 | 2. 범사에 잘 됨 |
| 3. 신유의 복음 | 3. 강건한 삶 |
| 4. 축복의 복음 | |
| 5. 재림의 복음 |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성경공부 : 오후 3시 30분
 구역예배 : 각 구역 별로
 주일학교 : 오후 1시 30분
 기도회 : 목요일 오후 8시
 한글학교 : 주일 오후 3시 30분

담임목사 약력

- ☞ 순복음 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 (현 한세대)
- ☞ 오산리 금식 기도원 주강사 및 대교구장
- ☞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대교구장
- ☞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 대교구장
- ☞ 대전 순복음소망교회 담임목사
- ☞ 뉴욕 퀸즈 한인교회 부목사
- ☞ 현재 보스톤 성령교회 담임목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회계 정리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공·인·세·무·사

김창근

TEL:(781)935-4620 FAX:(781)935-4187

보스톤 한인 최대의 자동차 종합 서비스

태양자동차

170 Mystic Ave., Medford, MA

- | | | |
|-----------|-------|-------------------|
| • 엔진수리 | • 튜닝 | ■ 중고차 판매 |
| • 트랜스미션 | • 에어콘 | ■ 렌트 카 |
| • 브레이크 | • 페인트 | ■ 토잉 서비스 |
| • 자동차전기 | • 타이어 | ■ 바디 & 리페어 |
| • 오일교환 | • 머플러 | ■ Mass Inspection |
| • 컴퓨터 테스트 | | |

영업시간 (OPEN HOUR)

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휴무

Tel. (781) 391-7700 (781) 391-6200
 (781) 391-3700 Fax:(781) 391-3400

박요한

변호사

오랜 경험과 믿음으로
이민자의 신속한 미국 정착과
권익을 위해 뛰는 변호사



박요한 변호사

- 미국 전국 이민변호사협회회원
-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이민법

- ▶ 이민업무 단기취업이민(RIR), 주재원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입양이민, 재입국허가증, 기각재심 청구 및 항소, 망명
- ▶ 비자업무 투자(E-2), 주재원(L-1/E-1), 취업(H-1), 종교(R-1), 학생(F-1), 귀국면제(J-1), 특기자(O/P), 제3국에서 비자발급, 국무성비자 재발급

가정법

- ▶ 합의 이혼 ▶ 국제 이혼 ▶ 입양 ▶ 양육권
- ▶ 보호명령

상법 · 부동산법

- ▶ 사업체매매 ▶ 주택매매 ▶ 리스협상, 검토 ▶ 라이선스
- ▶ 회사설립 ▶ 국제계약, 거래
- ▶ 콜렉션, 채권, 채무

상해 사고

- ▶ 교통사고 ▶ 비행기사고 ▶ 낙상사고
- ▶ 의사과실사고 ▶ 화재사고

형사법

- ▶ 음주운전 ▶ 각종 중·경범죄 방어 ▶ 매춘 ▶ 마약
- ▶ 성폭행 ▶ 폭행 ▶ 접근금지 명령

Yohan Park, Es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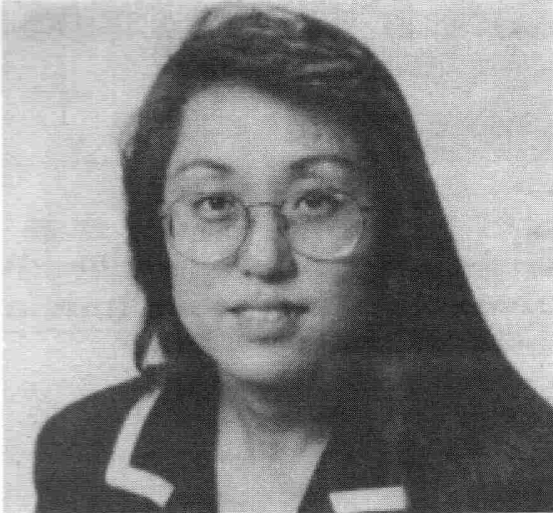
(617)499-0011

875 Massachusetts Ave., #32
Cambridge, MA 02139

이현주 공인회계사

C. P. 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설립과 해체
회계 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용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각종 License 신청업무

150 Main St.
Reading, MA 01867
Tel.: (781) 944-2442
Fax: (781) 944-2772

한국빵과 케익의 명문

서울제과

영업시간 (7 Days Open)
월-일 오전 7:30-오후 10:30

Tel.: (617)787-6500
56-8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ookjung 숙정(淑貞)
at
Putterham

New England's Favorite Treats

Taffy & Chocolate by Mail

111 Woodcliff Road
Chestnut Hill, MA 02467
617-325-5802

K. David Kang, M.D., FACOG

강길원 산부인과

Obstetrician and Gynecologist

Tel. (978) 957-4660
505 Nashua Road, Dracut, MA 01826

신신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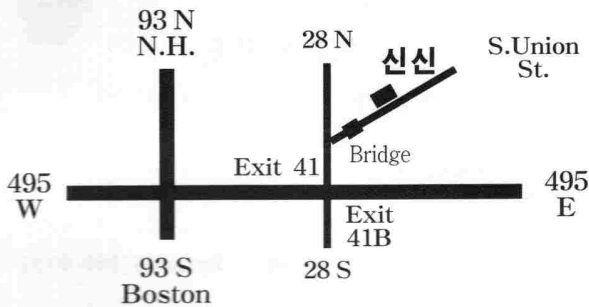
97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토: 오전 10시-오후 8시 월요일: 휴무



떡 전문점

형제떡집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백일, 돛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 01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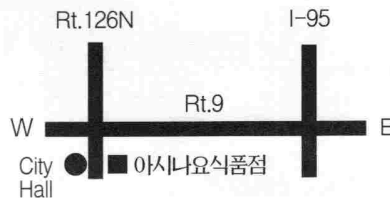
(97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 01976

(978) 851-4182

아시나요 식품점

진절 봉사
좋은 가격
만족한쇼핑



탐뉴스, 미즈
메디셀, 디에이지

참존 화장품
코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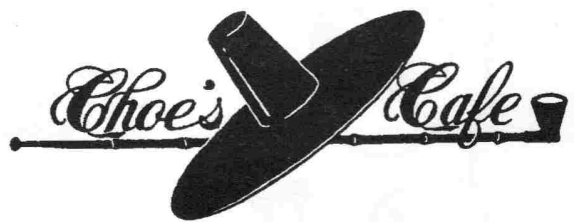
싱싱한 야채 및 과일 맛있고 싱싱한 육류 다양한 비디오테이프
각종 동양식품 일체 한국영화

(508)875-3634

185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2

민속식당

한국 고유 음식 맛을 고집합니다.



957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17)783-8702

임나경 심리 상담소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Psychotherapist

308A Harvard St. 22 Spear St.
Brookline, MA 02146 N. Quincy, MA 02169
Phone: (617)738-9622
Fax: (617)738-9622

CELEBRATING 25 YEARS IN BUSINESS 1976-2001



TEWKSBURY ANIMAL HOSPITAL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978) 851-3626
FAX (978) 851-6408

김문소

HOURS: MON. TUES. THURS.
9-12 NOON 4-7 P.M.
FRI. 9-12 NOON 4-6 P.M.
WED. & SAT. 9-12 NOON ONLY

DR. MOON S. KIM
DR. ELIZABETH A. NOWAK
DR. TARA M. SACRAMONE

WE ♥ REFERRALS

이운로 산부인과

Uhun R. Lee, M.D.

Practice in Obstetrics & Gynecology

Telephone 45 Pearl Street
(508)580-0044 Brockton, MA 0240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신영목 치과

FRANK Y. SHIN, D.M.D.

1428 Dorchester Avenue 1 Meadow View Lane
Boston, MA 02122 Andover, MA 01810

Telephone:(617)265-5606 Fax:(617)265-3803

안태준, D.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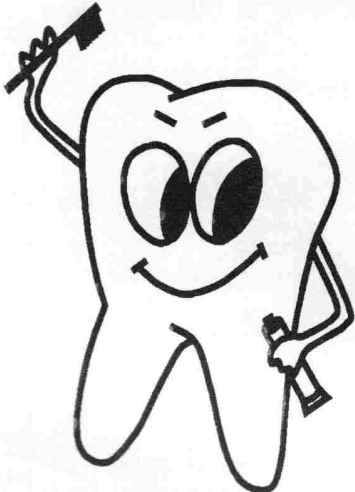
Tuft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문유경, D.M.D.

Harvard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강병영, D.M.D.

소아치과 전문의



- Preventive: X-rays, 치석제거, 치료상담, 충치예방, Fluoride Treatment(불소)
- Cosmetic: 미용 치과, Bleaching, Bonding, Veneers
- Pedodontic: 소아치과, 어린이 충치예방(Sealants)
- Orthodontic: 교정치과
- Restorative: 아말감, 보철(Crowns & Bridges), 틀니, 부분틀니, 치아이식(Implants)
- Periodontic: 치주질환치료
- Endodontic: 신경치료
- Oral Surgery: 구강외과, 발치, 사랑니제거
- Oral Pathology: 병리치과, 구강암진단

안 치 과

Cronin's Dental

225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781) 647-8000

한방은 한의사에게 _____

一善堂 漢藥房

일선당 한약방

E. SHAN TANG

OPEN HOURS

화-일(Tue-Sun): 10:00am-5:30pm

월(Mon): 휴무(Closed)

B. J. WANG



Comm. Ave.

Brighton. Ave.

157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617)787-4503 Fax:(617)787-4519

Korean & Japanese Restaurant

우촌집

Wuchon House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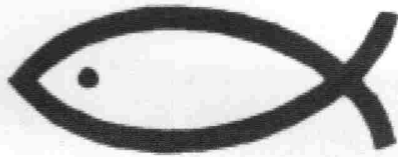
- 각종 대소연회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돌·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 Harvard & MIT에서 1마일 반
- 무료주차장 오후 5시 이후 (일요일은 무료주차)

【 영업시간 】

월 - 토
11:30am - 11:00pm

일요일
12:00pm - 10:00pm

Tel:(617)623-3313 • Fax:(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



싱싱한 생선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빛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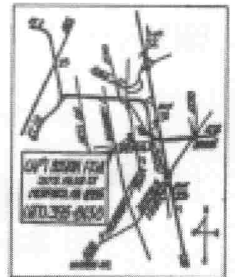
식당전용배달

영업시간: 월-토 8am-7:30pm

Tel. (781) 395-8138

Fax (781) 391-5782

375 Main St., Medford, MA 02155



93번 북쪽에서 오실 때: Exit 31번, Rt. 38 도로 페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번 남쪽에서 오실 때: Exit 29번, Rt. 38 North, 왼쪽 Harvard, 두번째 신호등 코너

신라

Korean & Japanese Restaurant

Harvard Square의 명소
보스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

- 신선도 제일의 스시바
 - Sake, 맥주, 각종 와인
 - 각종 모임을 위한 완벽한 설비
- 영업 시간
11:30 AM - 10:30 PM
(목,금,토 새벽 1시까지)

57 JFK Street
Cambridge, MA 02138

Tel.:617-547-7971 Fax:617-354-8022



한식 부산집 일식

구 리틀부산

- 미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 자연원료로 정성 들여 만든
독특한 맛의 소스를 사용합니다.

Beer
&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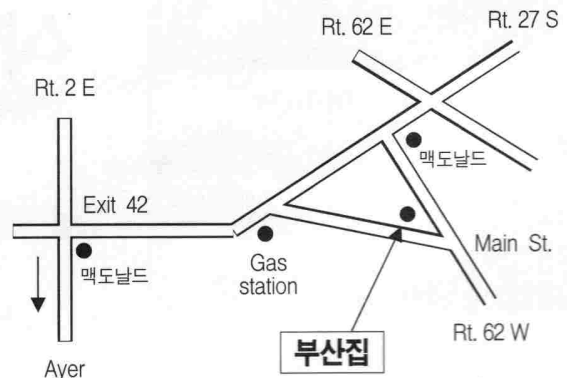


(영업시간: 주 7일 오픈) - 런치 스페셜 -

월-토: 11:00am - 10:00pm
일요일: 1:00pm - 10:00pm

전화: (978) 897-5107
83 Main St., Maynard,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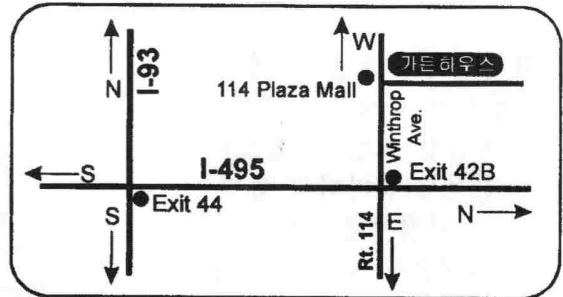
- 주방헬퍼 및 주방 경험 있으신 분 구함



가든 하우스 GARDEN HOUSE

한국식 중화요리 및 한식전문

특미
짬뽕 짜장



Tel (978)691-5448

108 Winthrop Ave.,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Tue-Sat. 11:30am-10:00pm

Sunday 12:00-10:00pm

(매주 월요일 휴일)

다모아 그릴

- Beer & Wine License
- 단체손님예약 환영 (120석 규모)
- 단체음식 주문환영
- 주차해 드립니다 (Valet Parking)
- Takeout & Delivery (\$20 Minimum)
(Allston, Brighton, Brookline, Newton Area)

117 Chiswick Road
Brighton, MA 02135
617-783-2116

한국, 일본, 타이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다모아 그릴입니다. 음식 하나 하나에
신선함과 정성을 담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디 오셔서 맛을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주요 메뉴

한 식	일 식	타이식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곱창전골, 해물전골	일본인 주방장이 만드는- 스시 스페셜	파 타이 (Pad Thai)
여름의 별미- 물냉면, 비빔냉면	신선한 생선으로 만드는- 사시미 스페셜	세슈안 (Szechuan)

Now OPEN!

사뽀로

뉴턴센터에 오픈하였습니다.
신선한 사시미와 수시를
마음껏 드실 수 있으며
한식도 준비되어 있고,
전철역에서 바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SAPPORO

JAPANESE KOREAN RESTAURANT

Edible Art

Open 7 days

LUNCH HOURS

Mon-Fri 11:45 am-3:00 pm
Sat-Sun 12:00 pm-3:00 pm

DINNER HOURS

Mon-Thu 5:00 pm-10:00 pm
Friday 5:00 pm-11:00 pm
Saturday 3:00 pm-11:00 pm
Sunday 3:00 pm-10:00 pm

**81R Union Street
Newton Center
(617) 964-8044**

깨 · 꽃 · 해 · 요!

Restaurant Yasu

FINE KOREAN-JAPANESE CUISINE & SUSHI BAR

맛있는 식당 ~ 깨끗한 식당 ~ 친절한 식당

Lunch Special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30-3:00

야수란? 스시맨인
주인아저씨의 일본식
이름입니다.

주인이 직접 음식을 만듭니다!

617 Main St., Waltham, MA 02452

781-894-9783

781-894-2120

Open H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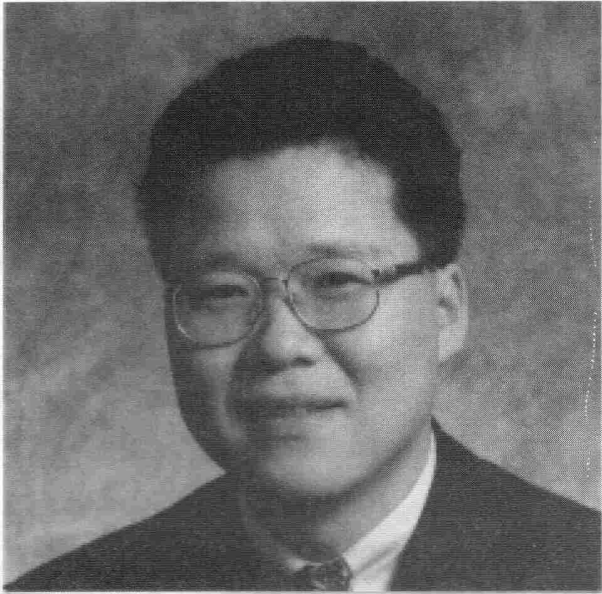
월요일-목요일
5:00-10:30

금요일-토요일
5:00-11:00

일요일
2:00-10:00

김성군 변호사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포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
- * 주법원 판사 보조
- * 매사추세츠주 국제 투자 개발원 근무
-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졸업
- * 성균관 대학교 졸업
- * *Gargill, Sasson & Randolph, William Diller* 합동 법률 사무소 근무

◇ 교통 사고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 ◇ 교통 사고 피해 보상
- ◇ 교통 사고 후유증
- ◇ 취중 운전

◇ 이민법/국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 영주권 이민 / 투자 이민 수속
- ◇ 장단기 취업 비자 취득
- ◇ 유학생 비자 변경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 ◇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라이선스가 필요하십니까?

- ◇ BEER/LIQUOR 도매 소매 허가증
- ◇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가정법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판매

◇ 법정 통역, 공문서 번역, 공증

상해 보상은 변호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Tel:(617)482-1300 Fax:(617)482-3344

Song-Kun Kim, Esq.

294 Washington St., Suite 436, Boston, MA 02108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 ◆ 부동산 (주택, 상업용)
- ◆ 융자 (노인컴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 ◆ 비즈니스 부로커 (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보스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결실을 드립니다.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무료 상담 전화 (800)867-9000

자세한 리스팅 information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leebrokers.com

E-mail 주소는 leebrokers@attbi.com입니다

이 경 해 (Kay Dong)

103 Chase Run, Stoughton, MA 02072-3566

Tel: (781) 297-5679 Fax: (781) 341-8239

김연숙 재정 기획 전문인 (Certified Financial Planner)



Yon Kim Corkum, CFP, CMFC, BFA
Advanced Advisor Group
Platinum Financial Advisor
(781) 562-2020

자격증

-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 Chartered Mutual Fund Counselor (CMFC)
- * Series 7 증권 브로커 자격증
- * Series 63 매사추세츠주 증권 법률 자격증
- * Series 65 연방정부 단일 투자 상담가 자격증

등록증

-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Planning

각종 투자와 보험 · 스타크 · 본드 ·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 사립양로원보험 · 불능보험

여러분이 힘들게 모으신 귀중한 재산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투자 전문인과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2백만명으로 미국 재정 기획회사 중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에서 최상급인
Platinum Financial Advisor 지위를 획득하고 해박한 투자 지식과
철저한 고객 서비스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Phone: (781) 562-2020 Fax: (781) 562-1010

E-Mail: Yon.K.Corkum@AEXP.com



Mr. Sushi

FINE JAPANESE CUISINE

일식 전문 식당

생선초밥
생선회



Beer & Wine
Freshest Fish in Town

주말은 예약바랍니다 !!

Major Credit Card welcome!!

Brookline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122

Arlington Center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781)643-4175